

第198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8年11月20日(金)

場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9年度豫算案
 - 가. 教育部所管
2. 1999年度科學教育基金運用計劃報告
3. 豫算案審查小委員會構成的件

審査된案件

1. 1999年度豫算案
 - 가. 教育部所管 1面
 2. 1999年度科學教育基金運用計劃報告 1面
 3. 豫算案審查小委員會構成的件 14面
1. 1999年度豫算案(계속)
 - 가. 教育部所管 14面

(10시33분 개의)

○委員長 咸鍾漢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教育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세기 마지막 年度이면서 대망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야 하는 1999年度教育部所管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로서 어느 해의 豫算審查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시발점이 될 來年度豫算이 금년도보다 오히려 5.1%나 감소된 16조5,917억여원으로 상정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각오로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가에 역점을 두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 效率性이 極大化되고 목표에 합당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는 國政監査를 통해 教育現場의 많은 목소리를 들은 바 있으며 우리 教育의 發展方向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들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教育정책에 관계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豫算審查는 21世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격의 없는 고견을 많이 피력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1999年度豫算案

가. 教育部所管

2. 1999年度科學教育基金運用計劃報告

(10시36분)

○委員長 咸鍾漢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 教育部所管豫算案, 의사일정 제2항 1999年度 科學教育基金運用計劃報告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 教育部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정부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海瓚 教育部長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1999年度 教育部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咸鍾漢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평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年度 教育部所管豫算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主要 先進國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成長潛在力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21세기 知識·基盤社會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教育改革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그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던 우리 교육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教育改革 推進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추진기반을 토대로 교육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여 國家競爭力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大學의 研究水準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研究中心 大學院을 육성하고 地方 優秀大學을 지원하며 대학을 多樣化·特性化하는 등 教育全般의 構造調整을 유도하고 국가적 연구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학년도부터 大學入學制度를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한 무시험 전형제로 개선하여 과열 입시경쟁으로 인한 과다한 私教育費의 부담을 경감하고 初·中等學校에서는 개인의 소질·적성과 흥미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길러주고 조사·탐구·토론하는 수업방법을 통하여 創意力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등 새로운 學校文化가 창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職業教育 部門은 산업체와 실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현장에 적합성이 높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專門大學을 特性化하겠습니다.

우리 40여만 教育家族은 교육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제2의 教育立國을 향한 현장중심의 교육 개혁 추진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來年度 政府豫算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98년 예산보다 재정적자폭을 확대하면서 각 부문에 걸쳐 景氣浮揚

을 위한 강도 높은 構造調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教育豫算도 양적 확대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教育豫算案의 歲入·歲出 規模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歲入豫算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2.1% 증액된 5조6,5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0.2% 증액된 2,636억원이며 地方教育讓與金管理特別會計는 2.5% 증액된 4조6,917억원입니다.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는 전년과 같은 7,0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8,929억원이 감액된 16조5,93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2% 감액된 11조7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04억원이 증액된 5조5,201억원입니다.

特別會計別 歲出豫算 規模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4조6,917억원, 재정융자 특별회계는 572억원,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507억원,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는 205억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는 7,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教育豫算의 주요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教育部所管 歲出豫算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929억원이 줄어든 16조5,9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教育財政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부문이 세수변동과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부문은 내국세 규모축소에 따라 9,218억원이 줄어든 13조6,7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부문은 289억원이 늘어난 2조9,1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教育財政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教育豫算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업비 재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확보된 재원은 大學教育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부문과 職業教育 기반구축을 위한 전문대학교육지원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構造革新과 教育情報化 부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教育豫算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初·中等教育 部門에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열린교육지원, 교과교육 연구회 지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및

평가 등의 사업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의 중식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전문대학 설립 등에 11.9%가 증액된 2,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職業教育 部門에는 직업교육의 중심 축을 전문대학으로 전환하고 실업계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부문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고와 전문대학간의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産業體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주문식교육지원, 재취업 전직교육지원사업 등에 256억원이 감액된 3,2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大學教育 部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우리의 최대 비교우위 분야인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세계 수준의 大學院中心大學 육성과 우수지방대학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2,000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大學評價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연구력 및 질 평가사업,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학술연구지원 사업 등에 금년보다 8.2% 증액된 1조1,9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教育情報化 部門에는 초·중·고 및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전산망과 초·중등학교 학내전산망을 구축하고 초·중등학교의 학사업무를 전산화하며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과 대학교육의 정보화 및 사이버대학운영 지원 등에 22.1%가 증액된 5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在外同胞 및 平生教育 部門에는 재외동포와 해외진출 국민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운영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운영, 평생교육 진흥, 진학·고용·평생학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단체인 教育研究機關, 國立大學病院 出捐에는 15.4% 감액된 1,0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립대학의 시간강사료 지원, 직속기관 운영 지원 등에 161억원을 편성하여 목적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교육부소관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教育部所管 豫算이 충분히 확보되어 教育改革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教育部所管 科學教育基金의 99年度 運用計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科學教育基金은 초·중등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과학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과학기금 134억9,600만원을 조성하여 그 과실금으로 초·중등학생의 과학탐구 및 사교력 신장과 과학교육진흥활동 등에 70억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科學教育基金 運用計劃의 세부내용은 학교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99年度 教育部所管 豫算案 概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앞의 총괄부분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9페이지부터 主要事業 內譯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自律教育으로 초·중등교육 혁신에 2,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에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교수·학습 구조개선에 61억원 그 내용은 시범학교 운영, 초·중등연계 시범단지 운영, 교원 연수 등의 열린교육지원을 위해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學校授業 革新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학생 독서교육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教育課程 改正 및 교과용 도서편찬에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현장 적용 및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목표, 내용, 편제에 적합하도록 1종도서 편찬을 위해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적합성과 효율성 평가를 통한 교육과

정 개선 자료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평가 연구학교 운영 신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성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재교육 강화에 2억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學父母團體 支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시다양화와 관련해서 국어분야, 수학·과학분야, 외국어분야 등 3개 분야에 관한 중·고등학교의 학력경시대회 지원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脆弱階層 學生支援에 13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特殊教育 振興에 59억7,0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특수학교시설에 13억원, 사립특수학교시설비 지원에 1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國立特殊教育 新設에 23억원, 국립특수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에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敎員研修 및 支援을 위해서 1,8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의 자질 향상 연수에 92억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초등 영어교사 연수에 38억원, 외국어 교원연수원 운영지원에 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초과학 실업과목 담당교사들의 국외 연수를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성기관 원어민 영어강사 초청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에 2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영어·과학 실험실 보조인력 배치에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私立學校 敎員支援에 1,652억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의 학자금 대여 위탁사업 부담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産·學連繫 職業教育 기반구축에 3,2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에 6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립 공고 시설 및 실습기자재 확충에 101억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국립공고 시설확충에 67억원, 실습기자재 확충에 34억원,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에 4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공업계 학과 신·증설 기자재 지원에 101억원, 다음 실업계고교 교육 내실화에 154억원, 그 다음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86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업계, 상업계, 실업계 직업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해서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고생 장학금 지원에 124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산업체 연수를 위해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자율실업계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農高, 水高, 商高의 학과 개편을 위해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용도서 발행비용 지원을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 운영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위해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專門大學 教育支援에 1,9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전문대학 시설확충에 202억원,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을 위해서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립 전문대학 설립 및 운영지원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립전문대학 시설비 지원에 30억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개교 예정인 장흥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국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립 전문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에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대학 이공계 연구소 첨단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産·學協力 職業教育 強化를 위해서 1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학협력 촉진사업에 30억원, 전문대학 실험·실습비 지원에 35억원, 전문대학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대학이 주관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실기 경진대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대학에 부설된 평생교육원에서 특별과정 등을 활용한

재취업 및 전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專門大學의 多樣化와 特性化를 위해서 6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계 전문대학 육성에 150억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300억원, 전문대학 구조조정에 80억원, 전문대학 주문식교육 지원을 위해서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유 향토산업 기반이 되는 전문대학 학과지원에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産業大學 支援에 6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대학 시설 확충 및 이전 지원에 4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대학 신설 8개교에 2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및 대전산업대학의 이전을 위해서 국유재산특별회계로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산업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産業大學 特性化 支援을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대학 기반조성을 위해서 70억원을, 산업대 이공계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를 위해서 14억원, 전통문화예술 중 특수전문분야의 학습효과 극대화 및 능력발전 도모를 위해서 문하생 학력인정제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大學教育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1조1,9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양성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0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원 중점지원에 2,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우수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에 2,0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원 중점지원을 위해서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大學評價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학 경쟁력 강화 평가지원 신규사업에 6억6,000만원, 고등교육 연구력 및 질 점검 평가를 위한 신규사업에 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大學教育의 多樣化, 特性化 支援을 위해서 7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대학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38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을 위해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6,7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李源馥委員 잠깐,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26페이지에도 國際專門人力 養成에 그동안 160억을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원대상학교 9개교가 있고 27페이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150억을 계상해 놓고 지원분야가 국제전문인력양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7페이지 국제전문인력양성하고 26페이지 국제전문인력양성하고는 사업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사업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27페이지 지방대학특성화에는 지방에도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李源馥委員 그러면 여기는 9개교이고 지방에는 몇 개교입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20개교입니다.

○李源馥委員 이것이 언제부터 된 사업입니까? 지방대학 특성화로 지원하는 국제전문인력양성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이고 그 동안 얼마기간 동안 얼마씩 지원되었었고 26페이지 국제전문인력양성은 어느 대학들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기간 동안 얼마씩 지원했는지를 비교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지방대학특성화로 묶어 놓았는데 국제전문인력양성분야로 돈을 줄 것 같으면 26페이지 국제전문인력사업하고 통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우선 출발이 26페이지에 있는 9개 대학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7페이지의 地方大學 特性化는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李源馥委員 아니, 그러니까 96년부터 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왼쪽 國際專門人力 養成은 국제전문인력 양성 그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이 쪽 27페이지는 지방대학 특성화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속에 국제전문인력으

로서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별도로……

○李源馥委員 만약 컴퓨터에 넣으면 어디다 집어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넣는 사람 마음이기 는 하지만 地方大學 特性化해서 국제전문인력 양성화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미 앞에 國際專門人力 養成의 큰 틀에 하고 있는데다가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중앙의 9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원칙적으로 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혼란이 좀 덜 하잖아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李源馥委員 분류하실 적에 어차피 오른 쪽에 돈줄 것 같으면 왼쪽에 갖다가 통합시키세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아마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大學教育의 內實化를 위해서 6,7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을 위해서 2,502억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 시설에 1,824억원, 교육대학 시설을 위해서 260억, 국립대학 이전을 위해서 3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신축건물의 비품비 및 이전경비를 위해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私學振興基金을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자금으로 장기저리 융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립대학 시설확충용자 이차보전에 2억5,000만원, 대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1,0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國立大學實驗實習機資材 擴充에 900억원, 이공계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에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사립대학 설비확충지원에 750억원, 교육차관사업에 2,0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借款元利金 償還에 1,166억원, 차관물자 용역비에 722억원, 부대경비에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연구능력 강화를 위해서 1,81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學術研究 造成支援에 1,000억원, 학회 등 학술단체 지원에 75억원,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에 15억원,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에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國立大學校 教員研究補助에 491억원의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간강사료 인상에 103억원, 고전국역 지원에 25억원, 대학연구실험실 연구조교 지원에 90억원 이것은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일환으로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大學生 支援에 3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大學生 學資金融資 이차차액보전에 93억원, 사도장학금에 61억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173억원, 대학생 해외활동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教育情報化 支援事業이 되겠습니다. 5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에 3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전산망 구축에 137억원, 초·중등학교 학내전산망 구축에 108억원,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에 61억원, 초·중등학교 컴퓨터전산보조원 지원에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情報化 活用能力 培養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원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를 위해서 19억원, 교육정보화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1억6,000만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國史編纂委員會 史料電算化 운영에 1억4,000만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에 1억5,000만원, 다음은 대학교육 정보화 추진에 10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교육 정보화에 55억원, 사이버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억원, 국립대학 전산운영에 4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國際在外同胞 및 平生教育 支援에 2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國際教育 부문에는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유학에 33억을 계상하였고 외국문화 이해를 위한 자원봉사단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초·중등학교에 체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교육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在外同胞 教育에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외한국학교 지원에 111억원, 상해한국학교 신축에 4억원, 재외한국교육원 지원에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平生教育 支援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교육 지원에 3억원, 학점은행제 운영에 2억원,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 지원에 8,000만원, 진학, 고용 평생학습정보센터 신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出捐機關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지원에 1,0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산하단체에 5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출연에 54억원, 한국교육방송 출연에 133억5,000만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출연에 76억6,000만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출연에 61억5,00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연에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출연에 59억원, 한국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출연에 100억원, 첨단학술정보센터 출연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病院支援이 되겠습니다. 총 4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분당병원 건립건축공사, 치과임상교육연구동 건립, 차관원리금 상환등에 3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대학 응급의료센터 건립에 12억7,000만원, 전북대학교에 의료기자재 구입, 치과병원 증축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대학 응급의료센터 건립에 13억원, 충북대학 응급진료센터 및 특수클리닉 건립에 12억원, 경상대학의 본관동 노후설비 교체공사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대학의 응급의료센터 건립에 12억7,000만원, 경북대학에도 응급의료센터 건립에 1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릉대학에 치과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教育政策研究 및 國立教育機關 운영 등에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신문화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총 연구비의 30%에 해당되는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출연 및 연구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구정책비를 일괄 관리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女性教育政策開發振興에 7,000만원, 새교육 공동체 운영에 9억, 교육행정연수원 개보수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 업무 외부위탁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교육기관 운영에 1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大學技能職 減縮으로 인한 대체용역 사업비에 14억원, 서울대 AID차관원리금 상환에 3억2,000만원, 대학입시 및 논문심사 경비로 9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地方教育 財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조6,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조2,8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교부금이 2조5,533억원, 경상교부금이 5조6,02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은 1,3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4조6,9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李源馥委員 숫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研究基盤造成 지원 부분이요. 그 밑에 단위가 기본적으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원으로 적혀있어요. 그것은 만원이 맞습니까, 100만원이 맞습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31페이지요?

○李源馥委員 31페이지 學術研究造成支援 부분이요. 단위들이 인문사회 연구지원, 대학부설 연구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금액 단위들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연구기반 조성지원은 만원으로 단위가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맞아요? 誤字입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내 것은 왜 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새로 배부해 드렸는데……

○李源馥委員 먼저 배부된 것이 오자가 있구만요. 먼저 배부된 것을 보가지고 거기는 만원으로 적혀있어서, 100만원이다 이것이지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예.

○李源馥委員 그렇게 되면 298억, 66억, 그 밑에 70억, 대학원 연구력 강화가 495억 해서 단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상세한 내역들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노란책 그 부분에 상세내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그렇기는 할텐데……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알겠습니다.

○李源馥委員 그 다음에 大學院 研究力 強化라는 것이 앞에 대학원 중심들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政策的으로 어떤 차이가 있거나 내용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학술연구조성비 1,000억원은 학술진흥재단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공모를 해서 연구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李源馥委員 논문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입니까?

○教育部企劃管理室長 金成東 그렇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議事日程 제2항 1999년도 科學教育基金 運用計劃報告를 듣겠습니다.

任東權 學校政策室長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學校政策室長 任東權 學校政策室長 任東權입니다.

99년도 科學教育基金運用 計劃을 油印物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科學教育基金運用計劃 概要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과학교육기금운용 계획의 목표는 초·중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탐구력과 사고력을 신장하고 과학교원들의 과학교육 진흥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主要事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학생과 교사들의 科學教育活動支援에 7억8,600만원, 과학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 연구개발 및 평가에 2억3,300만원, 과학교육단체 육성지원에 1억3,600만원 등 3개사업에 총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수행은 사업주관기관, 한국과학교육총연합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收入과 支出計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70억8,600만원으로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58억2,800만원, 이자수입 12억5,8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사업비 11억5,500만원, 기금관리비 100만원, 여유자금 운용 59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基金造成 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말까지의 총 조성액이 156억4,300만원이며 기금사업비 등으로 22억4,900만원이 사용되면 순 조성액은 133억9,400만원에 이를 것이며 99년도말에는 총 조성액이 169억100만원이 되고 기금사업비 등으로 34억500만원이 사용되면 순 조성액은 134억9,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基金은 金融機關 등에 예탁하고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기금은 21세기 첨단과학시대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교원들에게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통하

여 자긍심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쪽 이하의 收入 및 支出計劃, 基金造成 計劃, 主要事業別 支援內容 및 支援基準 등을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基金事業에 적극 반영할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제1항 1999년도 교육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鄭富永 首席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富永 首席專門委員입니다.

1999년도 教育部所管 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부측의 보고에 제시된 구체적인 숫자등 자료는 가급적 생략하고 主要事業別로 검토한 내용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를 보아주시지요.

먼저 幼兒教育 支援事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幼兒教育關聯 基本事業費로 유치원 자원봉사자 훈련지원 등에 전년도 보다 153%가 증액된 4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98년도에 중단되었던 유치원 자원봉사자 훈련지원비를 다시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特殊教育 支援事業이 되겠습니다.

特殊教育 關聯豫算은 基本費와 主要事業費를 합쳐서 총 규모 61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가 감소된 규모인 바 그 주된 이유는 사립특수학교 시설비 지원과 국립특수학교 신축비 지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점자교과서 지원사업예산이 미계상 되었는데 이 예산은 직접 서울맹아학교에 지원하도록 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初·中等教育 支援事業이 되겠습니다.

초·중등교육 지원예산은 전년도 보다 9.5%가 증가한 2,107억5,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독서교육과 인성교육 등의 신규사업이 계상되고 缺食學生中食支援費가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學校教育革新 教育研究活動支援事業이 되

겠습니다.

이는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조직된 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46.2%가 증액된 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740개의 연구회에 대하여 각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自生的 民間團體에 대한 지원은 교육개혁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등을 연구 적용하는 등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필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종교과용도서편찬 및 실고전문 교과용도서개발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다음은 缺食學生中食支援事業으로 99년도 결식 학생의 중식제공 예산은 98년보다 255%가 증액된 80억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동 예산은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4만6,600명에 대하여 중학생은 연간 180일 고등학생은 연간 90일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심을 거르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수가 늘어나 동 예산만으로 전부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예산외에 다른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초·중등학생 讀書教育强化豫算은 총 4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그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實踐爲主 人性教育强化를 위한 사업으로 4억1,7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동 예산은 도·농 학교간의 교류 및 학부모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등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나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예산을 단지 人性教育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녀간 및 모자간의 동행행사 등의 연수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시다양화관련 학력경시대회 지원사업

에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職業教育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중 직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고교 직업교육, 전문대학지원, 산업대학지원 등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7.3%가 감소한 3,246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예산상의 변화는 고등학교과정에서의 직업교육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대신 전문대학과정에서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학과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工高2·1체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전문대학과 실업고의 연계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직업교육의 역할 분담을 위한 명확한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교직업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교직업교육예산은 전년도보다 49.2%가 감액된 681억8,300만원입니다. 동 부분의 예산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實業系高校의 支援에 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첫째로 99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립공고 지원예산은 전년도 보다 34.8%가 감소한 101억1,700만원이 계상된 반면, 공·사립공고 201개교의 관련예산은 전년도 보다 65.4%가 감소한 255억3,500만원이 계상되는 등 국립공고와 공·사립공고와의 지원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공고생 장학금 관련문제로서 공고생 장학금 受惠率이 99년도에는 6.0%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공업고등학교에 보다 많이 우수한 인력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장학금 수혜율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고2·1체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입되었던 공고2·1체제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95.1%가 감소한 9,40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동 예산은 공고2·1체제를 위한 운영을 위한 産業體弘報 및 教師研修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95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했던 공고2·1체제는 99학년도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희망학교수와 희망업체가 적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IMF사태 때문이라고는 하나 동 사업은 그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實業高 教員 産業體研修가 되겠습니다.

실업계교사를 산업체에 연수시키기 위하여 15억 7,7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교사들이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專門大學教育支援事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6.8%가 증액된 1,939억5,600만원입니다.

동 부분 예산을 증감폭이 큰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아주시십시오.

전문대학예산의 주요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가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전문대학 지원 예산이 전문대학의 다양한 특성화 쪽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문대학 관련 사업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사업간 위상 정립도 힘든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내용이 모두 약간만 시각을 달리하여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수행방식등이 비슷한 것이 많아 한 대학에 대한 중복지원 혹은 반대로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문대학지원 예산관련 신규사업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전문대 전공동아리 경진대회지원사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문대학 構造調整事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자원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의 학과 통·폐합 등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역내 교수풀제 운영으로 인적자원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은 구조조정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며, 각 대학은 국고보조금의 2분의 1이상의 對應投資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대학경영의 효율화와 경영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대 주관 실고생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십시오.

다음은 실업고와 연계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동 사업은 실업고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連繫運營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등 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특별전형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30개교에 각 1억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업계고등학생의 전문대학진학이 많아 질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공고2·1체제 정책과는 상충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므로 공고에 대한 정책전환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專門大 再就業 轉職教育支援事業으로 동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하여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실직자에 대한 전직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그 사업성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專門大注文式教育支援事業으로 이 사업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문식 교육평가 우수대학 20여 곳을 선정하여 코스별로 5년간 5-8억원씩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固有郷土産業基盤專門大 支援事業으로 예산은 5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시·도별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전문대학 5개교에 대학과 연계된 고유향토산업의 규모에 따라 5-10억원씩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산·학협동공장실습관 건설, 산·학협동실습프로그램 운영, 고유산업의 세계화 추진, 상

품홍보 판매망 공동구축지원 등입니다. 지원대상선정에 있어 치열한 경쟁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공정성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

다. 다음은 여주자연농고농업전문교육원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국고에서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는데 98년2월졸업생부터는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해 주고도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동 교육원이 여주농고부설기관이므로 국고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예산당국의 입장에 따라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 교육원은 國家施策에 의해 설립하였고 그동안 시설비 100억원 운영비 6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후 지원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산업대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업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보다 18%가 감소한 625억4,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동 부분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이중에 신규사업인 門下生學力認定制 運營事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전통문화예술중 특수분야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에게 학력을 인정하여 전통문화 전수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통기술의 계승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大學支援事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대학부분의 사업을 위해 전년도보다 8.2%가 증가된 1조1,930억5,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학부분 예산은 크게 네 분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성화지원, 둘째로 대학교육의 내실화지원예산, 셋째로 대학연구 능력강화예산, 넷째로 대학생지원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대학지원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7페이지 하단만

보아주시시오.

대학시간강사 강사료가 시간당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4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전반적인 교육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대학부분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원중점육성과 우수지방대학 지원을 위해 신규로 2,000억원이 계상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평가관련예산을 두 가지나 책정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며 그리고 지난 94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대학부분예산 가운데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國際專門人力養成事業으로 이 사업은 96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99년도에 전년도보다 37.5%가 감액된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원래 매년 200억원씩 2000년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98년도에는 국가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경정예산에서 40억원이 삭감되었고, 99년도의 경우에는 사업평가가 결과보고에 따라 60억원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의 중간 평가를 통한 예산액 조정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동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동 사업에 지원된 국고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71%에 불과하는 등 不用額이 상당수준 발생하고 있으며 대응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 예산이 우수교원확보나 국제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師道獎學金으로 전년도보다 55.2%가 삭감된 6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것은 국립사범대생 중 '9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사도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국·공립 사범대생의 24%만이 교사로 임용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 및 사범대의 경우에는 외부 장학금이 전무하다는 점과 사도장학금의 도입취지가 우수교원유인책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립사범대생에 대한 사도장학금의 연차적 폐지는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사후 연수과정지원사업은 생략하고 유인

물을 보아주시시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특정 국립대학교에 대학원 전용시설을 구축하고, 기초과학 및 첨단공학관련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며, 대학원의 자율적 특화분야와 국가사회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인문·사회 과학분야, 국학분야등의 연구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이 여러대학 또는 사람에 대한 분산 투자였던 반면 이번의 대학원 육성사업은 단일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으며 대학원의 研究의 質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의도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그 동안 행해졌던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사업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먼저 확보한 뒤 사후에 대상 대학과 지원방식이 결정되어 그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비하여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등 준비과정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의 입장에서라도 상설 소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事後監視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지방대학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인근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학사과정은 지역에서, 대학원은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지원과 産·學協同體系를 확충하여 지역공과 대학의 특성화 등을 중심으로 실용전문교육의 내실화 및 벤처창업 육성 등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대학의 특성화사업과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大學競爭力強化評價支援事業으로 6억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

학으로 나누어 교육중심 대학은 학문분야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大學의 特性化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기존의 평가방법 대신 교육·연구·수업 등의 學事爲主의 평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서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92년부터 大學綜合評價를 실시해 오고 있는 바 사업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高等教育研究力, 質 點檢評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고등교육의 질과 연구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 점검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 이 역시 6억6,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수준의 大學院 研究中心 大學支援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教育情報化支援事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은 전년도 보다 22.1%가 증액된 549억9,900만원입니다.

동 사업중 繼續事業은 교육전산망 구축, 초·중등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과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사업, 대학교육 정보화사업과 국립대학의 전산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教育電算網 構築事業은 내용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敎員의 컴퓨터活用能力 活性化事業으로 이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수업현장에서 활용할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教育情報化 研究 示範學校 運營事業인데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시오.

다음은 障礙人教育福祉 情報센터運營事業으로 예산은 1억5,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遠隔特殊教育放送을 통한 관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과 인터넷 PC통신을 통한 직업재활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열린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지식에의 접근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이버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사이버대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국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再教育 要求를 충족시키고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교수방법 및 연구수준 향상, 학생 흥미유발 등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사이버대학만 운영하는 학교설립을 위한 관련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平生教育法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국내 사이버대학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國史編纂委員會 史料電算運營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99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17.6%가 삭감된 1억4,0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사업만큼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다음은 國際·在外同胞 및平生教育 支援事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재외동포 및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36%가 감액된 240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소관 외부위탁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外部委託事業은 경비절감과 외부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모두 그 동안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던 16명의 인력감축효과는 예상할 수 있으나 재외동포용 교재개발 및 보급사업과 국비유학생 시험관리사업의 경우 민간인에 맡겨질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과 사업비 부담이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침체에 따른 高學歷 未就業者 支援對策事業으로 첫째로 초·중등학교의 영어·과학실험실습지원 인력, 둘째로 초·중등학교 컴퓨터 전산보조

원지원사업, 셋째 대학연구 실험실습연구 조교지원사업 등에 총 2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3개 사업에 각각 3,000명씩 월 50만원 6개월씩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支援事業은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서 피지원자에게는 잠시나마 실업에 따른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하여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教育政策研究開發支援事業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사업인데 이것도 생략하고 유인물을 보아주시고요.

다음은 學父母團體 支援事業으로 학부모의 교육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고객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정책의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교육참여자의 일부인 학부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地方教育財政交付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11.1%가 감액된 8조2,873억5,2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세수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99년도 地方教育財政交付金중 봉급교부금이 99년도 공무원의 봉급삭감폭에 해당하는 3,935억원이 삭감되는 반면 이중 일부인 819억9,000만원이 증액교부금중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성과상여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비는 원래 봉급교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액수만큼 봉급교부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원봉급지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成果給의 受惠對象 選定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효율적인 豫算執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9년도 증액교부금의 성과상여금 외에 시·도교육청 자구노력 지원사업비로 500억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어 있는 바 동 사업은 9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지만 과연

이렇게 연례적인 사업이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增額交付金を 교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정신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傘下團體 出捐金 部分과 特別會計 部分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年度教育部所管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6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순서입니다마는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당 위원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豫算案審查小委員會構成의件을 먼저 의결하고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豫算案審查小委員會構成의件

(11시50분)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豫算案審查小委員會構成의件을 상정합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이 됨에 따라 국회법 제57조에 의거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기로 하고 간사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우선 豫算案審查小委員會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으로는 한나라당의 金貞淑 委員, 朴承國 委員, 李相賢 委員, 새정치국민회의의 薛勳 委員, 朴範珍 委員, 盧武鉉 委員, 자유민주연합의 金日柱 委員으로 결정하고 豫算案審查小委員會 위원장으로는 薛勳 委員을 선출하기로 간사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9年度豫算案(계속)

가. 教育部所管

(11시52분)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1999年度教育部所管豫算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의 첫번

째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鄭喜卿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새정치국민회의 鄭喜卿 委員입니다.

1999년도의 예산은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예산이라는 점에 매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안을 보면 新規事業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의 의욕적인 소신에 의한 교육개혁에 필요한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IMF체제 하에서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비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均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예산작성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讀書教育 強化를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이야 얼마나 강조해야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독후감경연대회를 하고 독서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는 데에 4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IMF체제 하에서 이런 사업을, 이것이 학생들의 독서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참 교육을 너무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讀書室 또는 독서실과 인터넷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을 지은 정보실 그런 시설을 좀더 확충하고 독서를 장려하는 것은 장학사 항이지 예산으로 이것을 시상을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또 소신있는 新規豫算으로 學父母團體 支援이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자체가, 그렇게 수요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1차需要者는 학생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단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再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朴正熙 政權 때 하던 것이 지금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여성단체가 몇 십년 지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願團體고 어디까지나 奉仕者團體인데 국가의 중요한 교육재정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조교사인력 실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그마치 80억인데 이것 정말 재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IMF체제 하에서 教育豫算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학교 일

선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 쳐다볼 시간 없습니다. 이것도 再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古典國譯에 대한 것이 2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문대학에서 注文式教育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단어를 억지로 창조를 해냅니다. 주문식 교육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그마치 10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傘下 研究團體에 대한 정부의 出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20%부터 30%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에 오히려 R&D를 강조를 합니다. 教育放送 같은 데는 한 30%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기초적인 기관들인데 이것 목소리 적다고 이렇게 막 잘라도 되는 것인지 제가 정말 알 수가 없고 教育部가 정말 연구와 내일의 개발을 위한 投資를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를 보면 거기 투자방식에서 공급자 중심의 量的 改善으로부터 '수요자' 팔호해 놓고 (교사·학생)이라고 해놓았는데 '質的 改善'이라는 제가 듣기에는 좀 해괴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수요자는 교사와 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깐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정말 교육부에서 많은 단어를 양산하는 가운데 그 언어들 이 것이 정말 교육부가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월달에 大統領께서 일본에 가서서 문화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육관계의 많은 협력을 하기로 협약을 맺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新規事業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韓·日 教育關聯事業의 교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차그마한 문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대학에는 엄청난 지원이 갑니다. 더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IMF체제 하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숨을 죽이면 그리고 이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大學의 秀越性 이것 가슴 칠 일이지요. 서울대학교가 5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가슴 칠 일이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또 大選公約에도 이 대학의 수월성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첫째는 IMF체제 하에서 차그마치 20%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大學의 秀越性이 한 두 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2,0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원만이 대학의 수월성을 지원 하는 지원이 되어서는 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民間支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교육부가 관장하는 재정은 그래도 국민교육 전체에 대한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단한 야심작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가 대학원대학으로 넘어가면서 2,000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제가 보기에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주면 다다익선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不均衡된 야심작을 내놓으시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특히 대학의 秀越性이 科學分野만의 秀越性이 뒤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 철학, 문화 전반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것도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實業系高等學校에 대한 지원이 매우 낮아졌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教育哲學上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C普及과 더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인데, 민간을 동원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교육방송국과 연계를 한다든가 또는 기타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만드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아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장관께서도 平生教育法까지 되면 우리 나라의 基本 教育法이 다 된다고 그러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 했습니다마는 幼兒教育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한다고 이렇게 소홀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기본사업으로 4억 1,516만원밖에 되어 있지가 않은데 우리 黨論으로서 幼兒教育法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지금 1년 밀려오던 保社部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재정적인 배경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동시에 幼兒教育法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재정일수록 또 교육부장관께서 굉장히 유능한 장관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GNP 6%는 몰라도 5%, 줄어든 GNP 5%는 확보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이 확 줄었어요.

그런 상황속에서 이렇게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 예산은 매우 가슴아프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幼兒教育面은 조금 더 輸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承國 委員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教育稅 廢止로 인해서 5조4,000억의 재원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私學振興基金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자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재단에서 99년도 2,000억을 요구를 했는데 99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500억 용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도 9%면 지금 시중의 금리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금리로 줄 바에는 차라리 사립학교에다가 起債承認을 해서 자기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진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사학재단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IMF를 당해서 私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적어도 본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私學을 自律體制로 놓아두었으면 학교를 더 짓든지 덜 짓든지 시설을 확충하든지 아무 관여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교육부가 끌어들이자고 지금은 사학의 이런 애로사항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될 입장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학도 일

단은 앞에서 장관 말씀대로 自律化하는 것은 하도록 하고 되지 않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운영비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大學院研究中心大學으로 해가지고 서울대학에다 2,000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2,000억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있느냐,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서울대학의 분위기를 알아보니 大學院中心大學은 일부 교수들이 원하는 것이고 다수의 교수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만, 그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교수조차도 모르는 것을 2,000억을 준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失職者 子女나 이런 교육부의 요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학기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이상으로 교육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예산을 과감히 더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 大學評價機構가 조성되어서 하는데 15억2,000만원입니다. 이 평가를 하는 것은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해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교원들이 수업을 못하고 그 평가에 매달립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수업도 못하고 교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評價機關을 常設을 한다든가 몇 명이 딱 짜여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평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15억2,000만원이나 드는 돈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교육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教員用 컴퓨터普及豫算 중에서 國庫가 95억이 들어가고 地方費가 380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방에서는 95억 주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380억을 지금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조달이 되느냐 하는 받을 사람들의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십억 받아가지고 예치해놓고 자기네 조달이 안되어서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문인력지원, 國際大學院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9개 대학, 요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시다마는 國際化는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총 560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2월 9개대학에 대한 中間評價가 나왔는데 보면, 대부분이 전임 교수·학부부족, 연구비 집행의 비효율성, 영어강의 부실, 장기적 재정확보 미흡, 이래가지고 되다말다 좀 잘 되는 데는 조금 나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중간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쯤 결론을 지어서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鄭喜卿 委員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학부모측에 돈을 준다는 것, 이것은 잘못하면…… 제가 육성회장을 20년 한 사람입니다. 해보면 보통 모이면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학교에 뭘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좋은 관례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학부형은 돈을 내고 어떤 학부형은 돈을 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貞淑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委員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을 짜내오신 것을 보니까 정말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짜신 것 같습니다. 지금 IMF체제라서 경제사정이 내년에 가도 극도로 악화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부측에서는 2.3%성장으로 예측을 하면서 景氣展望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에 있어서 징수계획에서 차질이 난다면 여기에 차질을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 되는데요. 염려스럽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같은 데서는 대개 마이너스 성장 또는 0에서 1% 이내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유독히 정부에서만 지금 2.3%를 놓고 있거든요. 이 점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금, 대통령 당선될 때 교육을 GNP대비해서 教育豫算을 6%로 하겠다고 공약을 크게 했습니다. 교육재정을 총 GNP 6%로 확충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오겠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이 6%라는 것은 OECD국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비가 6% 수준으로 가면 여러 가지 낙후된 教育與件이 改善이 되겠다는 기대감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에 당선을 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6%는 커녕 5%도 안 되고 4.5%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뭘로 어떻게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하실 지? 이것은 정말 우리 教育의 內實化 公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의 교육에 대한 無關心, 그리고 교육부의 無能力, 그리고 無努力,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이 겹쳐서 결합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영국같은 데에서는 IMF體制下에서도 教育費를 늘렸습니다. 교육은 百年之大計 事業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모델입니다.

유독히 지금 국민 총 GNP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판인데 여기에다가 또 프론테이지까지 줄여서 잡는다면 내년에 교육사업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실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고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억 學父母團體에 돈 준다는 것은요. 이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정책 관련 사업들의 후원자들을 아마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削減입니다.

그 다음에 大學院重點 支援事業의 問題點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수준의 대학원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 또 우수지방대학을 지원하겠다 여기에다 2,000억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적어가지고 긴급으로 하고 마이너스로

작년 대비해서 감소된 예산을 짜면서 여기에서 정말 쪽 정부에서 짜 온 예산안을 보니까요.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줄여가지고 어디로 이 돈을 다 보내려고 했는가 보았더니 2,000억원을 서울대학으로 보내려고 해놓았는데요. 이것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1,500억에다가 또 500억 지방대학을 지금 붙여놓았는데 이것은 재고하고요. 이것은 여기 예산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교육부가요 시각이 참 아주 근시안적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쪽으로 우선 정책을立案 하십시오. 지금 아마 서울대학건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 大學入試制度 改編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동안에 어쨌든 大學入試를 지금 無試驗으로 하는 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시를 내리고 하는 과정에 돈이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에서도 원래 學部를 많이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教育部의 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의 지금 構造調整案이 나와 있는 것을 내용을 보면 학부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學部도 지금 1만5,000인가 1만8,000명 그대로 두고 대학원만 늘려놓고 돈만 7년동안 1조2,560억을 빼가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국회 교육위원이랄지, 또 국회 豫決特委랄지 이런 데다가 한 번 보고라도 하고 서울대학총장이 못하면 교육부에서라도 교육위원들에게 상의를 해야지요.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든지……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니까 국회에서는 무조건 따르라 하는 발상이 아닌가 몹시 아주 흥분되는 일인데요. 이것은 교육부도 진작 국회에 보고했어야 되고 서울대학은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울大 構造調整案이 나오니까요. 많은 사립대학들에서도 構造調整案들이 붓물터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만 대학이냐? 서울大 따라잡기, 또는 非서울大間 서울大間, 또는 국립대학 중에서도 지방대학간 서울대학간 이런 경쟁심리발동이 지금 심해지고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유사한 대학들이 모두가 다 構造調整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쟁심리로 들떠서 대구조정을 서울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하다가는 부작용만 남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失職家庭의 子女學費支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失職家庭子女들의 學費支援을 99년도에는 뭐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98년까지는 이것이 받았는데요. 28만3,000명이 學費減免 惠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99년도에 가서는 지금 소요예산은 한 2,302억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지금 막막합니다.

그런데 지금 缺食兒童들의 中食支援을 위해서는 80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비를 못내서 학교를 못오는데 누구에게 밥을 준다는 말입니까? 먼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의 案을 낸다면 敎壇先進 化作業은 해마다 지금 돈이 늘어가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물론 돈이 많으면 선진화작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좋지요.

이런 데서도 좀 빼고 그 다음에 小規模學校 統·廢合하고 廢校들 活用하고…… 지금 폐교가 506개가 전국적으로 미활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들을 좀, 금년만 해도 廢校活用을 해서 30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폐교활용을 많이 해서 여기서 돈을 좀 만들고 해서 이런 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教育情報化事業의 再調整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鄭喜卿 委員님도 지적하셨듯이 高學歷 未就業者 支援對策을 위해서 再檢討가 이것은 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275억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왜 교육부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우선 쓸 돈이 아닌 것같아서 이것도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학교수업혁신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다가 37억인가 얼마를 지금 해놓았어요. 이것도 이 연구를 교육개발원이랄지 연구기관에다 맡겨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또 교사들이 나서서 하고 또 교육부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大學評價에 대해서도 우리 朴承國 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제 제가 또 지

적을 했습니다.

이 평가를 教育部에서 돈주기 위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大學教育協議會에다가 임무를 더 주고 조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보완을 해가지고 아예 맡겨서 그 자료를 쓰든지 아니면 정말 民間機構, 제3의 어떤 기구에 의뢰를 해서 대학평가를 하시도록 해야지 教育部가 나서서 해마다 돈 갈라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얘기도 들리고 이것은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물론 거기에다가 지금 17억인가 얼마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재고되어야 되겠고요 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時間講師料를 올려주겠다 해서 5,000원을 올려놓았는데 國立大學에 나가는 時間講師만 시간강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私立大學들이 어떻게 따라올지, 만약에 못 따라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女性教育 政策開發을 하겠다고 7,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무슨 7억인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았는데 7,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참 말이 안되지요. 이 연구비를 넣으려면 정말 7억을 넣든지 더 넣어야지 어떻게 세상에 7,0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증가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사후 과정에 있는 사람들 연구하는 것을 왜 教育部에서 돈을 대줍니까? 이것은 學術振興院쪽으로 내보내고 박사후 과정에 대한 연구를 다른 基金을 얻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데까지 돈을 전부 다 대주다 보니까 정말 初·中等教育의 正常化, 지금 過密學級 解消랄지, 아까 인천 같은 데에서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말이예요.

또 初·中等學校의 在來式 化粧室 때문에 아이들이 그 비위생적인 열악한 환경, 또 수질 나쁜 지하수를 마시고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야지 지금 엉뚱한 데로 균형이 깨지는 이런 歲出豫算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教育部에서 來年度豫算을 이렇게 짜

올리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豫算書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 같은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教育에 관한 豫算은 깎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이고 두 번째는 教育部 자체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은 教育에서도 소외되고 그늘진 그런 지역 또 그런 단체,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단체는 단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돈을 더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부를 많이 하고 고학력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은 줄이고 저학력이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예산은 높이고 이런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의 예산보다는 初·中等學校 예산을 높여야 하고 도시의 예산보다는 농촌의 예산을 높여야 하고 教育청이나 教育部 본부의 예산보다는 말단 일선학교의 예산을 높여야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한 달에 만원을 올려 주더라도 農村地域, 僻地, 島嶼地域 이런 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특별히 수당이나 이런 것을 아주 대폭 올려서 그 분들이 벽지에서 教育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예산을 좀 짜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저도 몇 가지 약간 지적을 해보면 신규사업에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 외국문화 이해를 위한 자원봉사단 지원,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이 부분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나라에 이 예산을 안 주어도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나라 발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國監 가보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중등학교하고 합쳐 가지고 初·中等學校를 連繫해서 教育장을 만드는 것을 각 시도별로 확산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대학원중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大學院에 2,000억 넣을 바에야 그 돈 가지고 시골학교, 초·중등학교에 넣어야 되고 또 이 결식아동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학 때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

오. 우리는 매일 점심에 그래도 5,000원짜리 이상 점심을 먹는데 1,500원에 해당하는 점심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돈을 아끼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학까지 다 보내고 대학원까지 다 해놓았는데 지금 무슨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제 말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豫算의 優先順位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公·私立專門大學 설립에 보면 공립 장흥전문대 예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겠지마는 지금 시골가면 웬만한 군단위, 읍단위, 시단위는 專門大學이 다 있지요?

저도 차를 타고 慶北 北部地域을 다녀보는데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그쪽으로 죽 다녀보면 문경새재 넘어서 이렇게 가보면, 聞慶 가면 하나 있고 醴泉 가면 또 하나 있고 尙州 가면 또 하나 있고 安東 가면 또 하나 있고 榮州 가면 하나 있고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전부 통합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없고 運營財政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골에는 대학을 어떻게 하면 地域別로 統合해서 운영할 것이냐, 줄여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郡單位로 專門大를 公立으로 세워놓으면, 사립 같으면 뭐 돈 있는 사람이 세운다니까 별개 문제지마는 공립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돈이 또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제 조그마한 고향에 가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화체육회관인가 하는 이름으로 몇 십억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연간 運營費가 한 1억이 드는데 조그마한 군에서 1억 돈을 어디서 뺏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전부 돈 따기가 급해서 예산을 따서 지어놓았는데 運營費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들쭉날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豫決委에서 지적했지만 이런 것이 전부 豫算浪費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도와주거나 또는 돈을 더 주어야 될 데가 있다면 제가 이번에 국감과정에서 보았지마는 教育放送이라든지 教育開發院이라든지 精神文化研究院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돈을 좀 많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박사까지 한 사람이 후에 연수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돈을 또 왜 줘니

까?

이렇게 볼 때 저는 教育部의 예산이 어디를 얼마를 깎고 이것은 此岸의 문제고 우선 전반적으로 豫算編成의 원칙과 長期的인 教育의 전망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李源馥委員 정회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잠깐 하겠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地方教育財政이 어쨌든 지금 13조 규모가 되어 있는데 地方財政交付金하고 讓與金하고 教育環境改善金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데 시·도별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그것을 1부 식사 끝날 때까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馥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李源馥 委員입니다.

저는 豫算案을 보게 되면 교육부와 정부의 教育政策과 그 교육정책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론에 대한 플랜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國政監査를 치르면서 수많은 사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대단히 추상적이기도 한 여러가지를 보게 됩니다마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정책에 대한 論難事項들에 가장 구체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은 역시 豫算案에 대한 자료를 보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위원님들에게 제공한 예산안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의 현 교육부가 그야말로 어떠한 思考의 構造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느낌을 받고 알게 되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教育政策의 哲學과 方法論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느낌의 첫번째가 대단히 걱정되고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總論提起부터 하겠습니까마는 이번에 教育部가 편성한 豫算案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러 기동들을 다 빼가지고 대들보 하나 세우면 집이 된다 하는 이런 사고의 구조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되고 있고 교육부의 예산도 어찌보면 여러 형태로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취지들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前年度 對比해서 구석구석에서 부분적으로 예산들이 절감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교육부의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손발들을 다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정책이 이유없이 장관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단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변질되어 버리거나 왜곡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 200억을 주던 프로젝트가 IMF사태로 여러가지가 감축된다고 해서 갑자기 100억 정도로 반 이상을 잘라버리면 또는 200억을 주던 프로젝트를 130억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70억 정도를 뚝 잘라버리면 이것은 IMF과동에 의해서 오는 自然削減分 대충 7%라든가 10%削減分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취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그 프로젝트 자체를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점까지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중도에 途中下車되어 가는 그러한 豫算編成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同僚 委員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마는 大學院中心大學 事業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규로 2,000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삭감을 시키면서 大學院中心大學을 마치 萬病通治藥인양 세우는 豫算編成策입니다.

대학원중심대학의 경우에는 적어도 2,000억 가까운 규모는 현재 이 나라의 160·170개 되는 專門大學에 전체적으로 1년간 지원하는 토탈 支援費 1,900억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지금 어느 분은 한 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교육부내에서 비공식적이든 사적이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한 개 대학만이 아니다, 몇 개 대학에 주기는 준다, 서울대학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대학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몇 개 대학에서 어쨌든 大學院中心大學을 만들어 나

가는 그 체계에 주어지는 경비가 약 160·170개에 이르는 專門大學 전체에 1년간 들어가는 豫算하고 맞먹게 갑자기 신규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적어도 이 교육부가 教育政策에서 중요한 어떤 政策的인 分岐點들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추상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大學院中心大學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내놓아 보라 했을 때 내놓은 것이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2,000억 가까운 예산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아라 했는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물론 추상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성이 없는 계획을 놓고 갑자기 2,000억씩이나 되는 新規豫算을 편성해 가면서 곳곳의 것을 다 잘라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여러 기동을 빼서 대들보 하나만 세우면 그저 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구조하고 똑같다, 이것은 教育政策上에 있어서 이 교육부가 갖고 있는 豫算編成과 教育政策 執行에 있어서 얼마나 철학과 방법론이 취약하고 허술하고 조잡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삭감된 것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特殊教育 119억 하다가 59억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거의 한 60억을 줄였습니다. 大韓民國의 特殊教育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59억도 무엇때문에 줍니까? 119억도 부족한 판인데 뚝 잘라가지고 59억을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해서 하라하고요,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擴充 內實化 부분들도 972억 주던 것을 493억으로 뚝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교육 내실화하는 부분,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상으로는 '전문대학쪽으로 기능을 옮겨가면서 전환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에 들어갈 영역이고 實業系 高等學校 現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뭔가 발전이 와야만 많은 학생들도

실업계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는 실업계가 필요없습니까? 實業政策 안 할 것입니까? 實業系 高等學校 완전히 죽일 것입니까? 인문계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것도 대단히 난잡하게 진행된 것이다, 實業系 高校의 實習機資材같은 경우는 492억 주던 것을 154억 주겠다면서 이것은 300억 이상을 뚝 잘라버렸습니다. 公·私立 專門大學의 實驗實習機資材 購買도 750억에서 50억을 줄여서 700억으로 줄었습니다.

國際專門人力 養成의 경우에 100억원을 잘라버렸는데 이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연간 최소한 200억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런 체계로 마스터플랜이 잡혀서 진행을 해나가다가 IMF사태가 오면서 예산들이 어느 정도 自然減少分이 필요하다 해서 160·170억인가 주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100억으로 뚝 잘라버렸습니다. 건물 짓게끔 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을 주어놓고 나서 소프트웨어 운영에 들어갈 찰라에 돈을 안 준다는 발상과 똑같습니다.

조금 아까 高校職業教育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최소한 前年度 對比 7% 정도나 10% 정도 삭감되는 것은 양해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폭 자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特殊教育振興費같은 경우에 89억인가 주던 것에서 59억으로 뚝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또 基礎科學研究所에 관한 것, 여기는 생명공학, 반도체, Mechatronics 우리 나라의 21세기 최첨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러한 연구들을 해오고 있는 연구소들인데 이 自然科學研究所 또는 基礎科學研究所의 경우에 각 대학에서 나름대로 많은 학자들이 수혜혜택을 받아 그나마 사기가 진작되면서 해왔습니다. 국가에서 이 基礎科學問題에 대해서 그나마 지원을 안 해주면 이 분들이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문계쪽하고 통합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백오륙십억원씩은 주었던 것 같은데 人文系하고 합쳐가지고 하나 하는 식으로 해서 70억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교육부에서 21세기형 신과학연구소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손 떼겠다 하는 발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안하겠다, 못하겠다, 줄이겠다 하면서 또 각종 산하 연구기관들, 傘下團體들 여기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것은 다 깎이고 줄여가면서 오로지 실체도 분명치 않은 대학원중심 대학 하나 그것을 육성하면 이 나라 교육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발상자체가, 그러한 전략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님들도 서울대학에 관련해서 말씀주시고 정부답변도 꼭 서울대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만 관련해서 얘기하면 지금 이 나라의 교육에너지의 독과점 현상 대단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서울대학만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육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와 명예와 실력 모든 것들도 어느 정도는 분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學校別로 약간 분산될 필요가 있겠고 地域別로도 분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학부중심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중심으로 가고 학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지방으로 이전해 가고 서울에 있는 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서 지방이전을 하고 국가의 발전에너지와 맞추어서 가려고 하니깐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몇년간에 걸쳐서 1조4,000억이든 2조가 되든 그것은 國家政策的으로 필요하다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는 학부대로 어느 정도 獨寡占 形態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대학원까지 왕창 몰려 가게끔 되는 형태에다가 돈 지원해 달라 하는 교육부는 그렇게 얘기안합니다마는 지금 서울대학쪽 發展計劃案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말하자면 뒷받침 하는 형태로써 예산편성체계가 들어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다루어 주시겠습니다마는 손발 많이 짚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시 평가를 해서 최대한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게 하거나 내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10% 내에서 삭감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것은 대폭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大學院中心大學院 그 실체가 명확하게 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교육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한 다음에 다시 그것은 전반적인 평가가 우리 委員會內에서도 그것은 필요하겠다 느낌이 올 적에 그때 다시 검토해서 올리더라도 그것은 삭감되고 실업계고등

학교, 또 전문대학 문제도 그렇습니다. 專門大學하고 大學보면 인원대비해 보면 대충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생수 퍼센테이지 한 40% 정도됩니다.

그런데 대학부분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1조2,000억인가 가까이 쓰면서 전문대학은 1,900억원 씩입니다. 이것도 이 나라의 專門大學政策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문대학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덩어리가 적은 데서 올라가는 것이고 專門大學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實業系高等學校 이렇게 확대하는 정책은 안된다, 더 올릴 것은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한나라당의 黃祐呂 委員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교육부 예산안을 보고 한마디로 허탈감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특히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려울 수록 교육예산을 깎지 말라, 교육예산은 가능하면 늘리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후손한테 물리지 말자 하는 얘기를 목청을 높이고 설득하려 했는데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가뜩이나 줄어든 GNP의 4%, 어제 총리가 제 질문에 대해서 4.2%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은 總額基準으로 할 때는 15%정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마는 이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몇년 뒤에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公教育에 미치고 公교육은 基礎學力에 미쳐서 결국은 저변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教育部가 애초에 얼마의 예산을 상정했는지 그래서 예산청에서 얼마나 삭감된 것인지 그 중요한 내역과 과정을 구두로 할 수 있으면 구두로 해주시고 너무 복잡하면 서면으로 내주셔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최종적인 증액과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려울 수록 중점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을 찾아내야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의 競爭相對國들 우리가 OECD에 가입했으면 적어도 교육만큼은 OECD 국가내의 균형이 맞아야 합

니다.

제가 OECD가입할 때 죽 표를 보니까 가입은 했지만 상당히 후진적인 나라가 있어요. 터키라든지 또 중남미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가 들어가서 어느 위치를 차지할까 관심이 생기고 잘못하면 국제적인 어려움 또 망신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教育分野에서 OECD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OECD의 여러 나라를 우리의 競爭國으로 봐서 우리도 맞물리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주요국의 중점 투자사업과 우리의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투자에는 하드웨어 투자와 소프트웨어 투자가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도 하드웨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질적인 경쟁 다시 말하면 자유와 창의에 기여하는 그러한 큰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데 뒤떨어져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못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豫算의 新規事業을 보면 소프트웨어에 착안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 맨 처음에 예상한 대로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아직도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삭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精神文化研究院도 가보고 放送施設에도 가보고 미래에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산하기관들에 대한 투자는 약화되면 안되겠다, 한 기관 한 기관이 눈물겹게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研修·研究機關에 대한 확대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문제가 나오는데 저 자신이 서울대학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하나만 우뚝서고 하나만 공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저희가 다 주지하는 바지만 하버드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하버드 출신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학부를 나오더라도 대학원은 스탠포드나 예일에 가서 다른 자기의 專功教授나 자기의 專門擔任教授가 아닌 사람한테인정을 받고 온 제자들만 하버드에서 다시 교수를 시킬 수 있지 하버드에서 대학을 나오고 大學院을 나오고 학위과정을 같은 선생님한테 죽 한 사람이 교수가 되면 하버드대학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울대학 하나는 국내에서는 어느 대학도 추종을 불허하는 공룡화되고 심지어 많은 국민들은 암적인 존재로 되어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거금을 들여서 大學院中心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중심, 학자양성 중심, 국책의 어떠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곳으로 변형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한 학교를 하시지 말고 두세 학교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돈을 들이시는데 大學院中心으로 하려면 학부를 줄여야 됩니다. 학부를 줄인다는 전제가 없이 대학원을 또 강화시켜 놓으면 서울대학은 대학도 강화되고 대학원도 강화되고 이러면 우리 교육의 폐해를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전하기에는 부적절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대학을 균형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문제와 前提條件인 학부의 축소가 전제되어서 거기에 충당되는 자금을 전용하는 식으로 대학원으로 돌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대학을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독일에 보면 흠 볼트의 사상에 의해서 지방대학 하나 하나가 문화의 중심이 되어서 각 주마다 있는 지방대학이, 地方大學이 있으면 병원이 있지요, 오페라하우스가 있지요, 거기에 모든 과학, 공학대학이 있으므로 모든 기술이 충족이 되지요. 바로 그 대학 하나가 그 지방의 파워스테이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체제로 앞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학정책에서 地方大學의 중점육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정치적 중립이 교육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받는 일은 하시면 안된다, 아까 존경하는 鄭喜卿 委員님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3억원의 학부모 단체나 이러한 자발적인 자생단체에 교육부가 투자하는 것만큼은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짚막하게 드립니다.

네번째로 教育環境部門에 투자를 7,000억, 1조를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交付金이 地方議會에 가면 중앙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별로 심의

를 안해요. 건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배분, 특히 세계 각국의 教育豫算 투자의 방향이 단위학교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중앙에서 최고 단위의 教育部에서 말단학교까지의 자금의 흐르는 경로를 파악하고 확인하시고 그것을 점검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특히 이 教育環境 부분에서는 양여금, 교부금 형태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심도 있는 심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저분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特殊學校에 대해서 워낙 투자가 주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特殊學校를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特殊學校財政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圖書館에 대한 것을 文化觀光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고 예산도 만들어 보시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합동영역이거나 아니면 교육부가 가져와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失業者들에 대한 學費支援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것 없이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또 그 적절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教育部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중심 대학문제는 원래가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를 줄인다는 전제로 대학원중심대학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학과를 인정하는 데는 학과대로, 학부를 인정하는 데는 학부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지 教育部에서 一方的으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부와 서울대학교측과 아직도 알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전 세계의 흐름이 대학원중심대학 흐름으로 가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이렇게 선호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막을 입장은 못되는 것인데 서울대학교 비대하게 해주고 공룡화한다는 생각이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했다는 것은 교육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서울대학교를 학부는 줄이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처음에 大學院中心大學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탈색이 되어서 이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방대학도 그래요. 地方據點大學 育成한다고 굉장히 소리 높혀 외쳤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지방거점대학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지 왜 國際大學院이라든가 지방거점대학이나 대학원중심대학 굉장히 바람직한 소망스러운 항목을 빼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들을 그런 일을 교육부가 하고 있는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金日柱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먼저 私學振興基金이 지난 해 850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350억이나, 500억으로 삭감해서 예산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와 같이 850억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私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增額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方教育財政에 대한 토론을 하겠는데 99년도 教育部 豫算案을 보면 98년 제2회 추경대비 국고는 1%, 약 289억원이 증가했으나 地方教育財政은 6.3%가 줄었는데 액수는 9,218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教育與件 改善事業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콩나물 교실인데 교육환경개선 하려면 예산지원해야 되는데 많은 액수가 삭감되고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0년까지 개교해야 될 학교가 60여개 교입니다. 예산은 약 5,00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경기도 教育環境 與件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教育部長官이나 教育部 關係者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굉장히 國庫支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地方教育債를 발행해서라도 시급한 教育施設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땅값이 싼데 이상으로 땅값이 더 쌀 수는 없을 것

이에요.

그리고 人件費도 싸고 예년의 반 정도가 아닌가 쉽습니다. 건축자재도 물론 싹니다. 그래서 기채해서 건설한다면 앞으로 일정시간 이후에 반값 정도로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자영농고부설 農業專門教育院이 있는데 이 교육원에 96년, 97년에 農村後繼者 양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이 점차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인력부족이고 그래서 당시의 취지는 농업전문교육원을 만들어서 후계자 양성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41억원을 지원했고 98년에도 19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削減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豫算編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99년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농업교육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농촌환경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特殊教育 振興에 대한 문제인데 障礙人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대로 지원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교육부는 굉장히 자각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黃祐呂 委員도 서울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9개 대학의 국제대학원 지원같은 것도 보면 96년부터 금년까지 560억원이나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것을 보면 어떤 데는 한 10% 사용하고 어떤 데는 한 반 정도 나머지 액수는 투자신탁에 넣어놓고 이자가 20억 정도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障礙人들을 위한 教育施設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지원이 없이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부 문제입니다. 특히면 복지사회건설이니 민주화니 등등 우리가 좋은 얘기는 다 해가면서 가장 소외받는 障礙人들에 대한 教育施設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에 112억을 지원했고 99년에 52억원을 삭감했지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金日柱委員 깎을 데가 따로 있지 새발의 피를 내는 식이지 그렇지 않아도 여태까지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경기북부는 일산하고 고양에는 特殊學

교가 모두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이쪽에는 특수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이나 연천 어린이들이 파주나 고양까지 오려고 하면 차로 왕복 다섯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못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98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國際專門人力養成이라는 취지에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서울에 9개 대학 국제대학원에다가 96년에 560억이나 지원했는데 저는 여기에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에 대학원이 몇 개씩 있어요. 어떤 대학은 대학원이 다섯 여섯 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발상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을 해야겠다. IMF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예산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원할 생각이 꼭 있다고 그러면 10분의 1만 가지고도 이 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나? 대학에다가 인력양성을 위한 科를 하나 신설을 하면 됩니다. 이 돈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꼭 양성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과에 유학을 시키면 훨씬 적은 돈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든지 여기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마 교육부 재정을 이것의 10배를 주어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마 教育部 關係者들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서 쓰여지는 돈들이 어느 신탁에 들어가서 이자수입이나 거두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 들어가서도 깊이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어서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敎員研修 및 支援에 보니까 교원의 자질향상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연수시키는 것이 전부 초등이나 중등이나 전부 영

어선생님들 연수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연수과정 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요즘 우리 교육부에서 60세로 停年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敎員資質向上을 시키기 위해서 젊은 우수한 선생님들 모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優秀敎員 확보의 묘약이 60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주 답이 확연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선생님을 임용을 했더라도 자격연수이든 일반연수이든 끊임없이 再敎育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돈을 여기에 한푼도 책정된 것이 없어요.

완전히 영어교사 연수만 있고 과학선생님은 안계시고 수학선생님은 안계십니까? 선생님 연수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또 거기다가 사범대학의 사도장학금도 안준다고 그러고 양성서부터 포기해 버리고 임용한 다음에 再敎育도 포기를 해버리고 젊은 선생님만 모시면, 지금 60세 이상 65세 선생님들을 아주 무능하다고 치부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라 교사들 수준 중에 60세 이상 65세 그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제일 똑똑한 분들이 師範學校 가서서 지금 교단에 서계시는 분들 일 것입니다.

그 분들 이후에 그렇게 우수한 인력이 사범학교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잠깐 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여기 적혀 있네요. 이것 나중에 답변하실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相賢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賢委員 이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敎育財政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年度 豫算案은 올해 2차 추경예산 대비 5.1%가 감액된 약 16조6,00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98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3조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敎育財政은 GNP 대비 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장관께 묻겠습니다.

GNP 대비 5% 확보 계획, 대통령 선거공약 6%, 이것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經濟與件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금방 1, 2년 내로 호전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GNP 대비 5%, 대통령선거공약이다 이러한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豫算問題,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豫算編成權이 없고 審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액을 여기에서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이 企劃豫算委員會라든지 大統領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教育財政을 GNP 대비 5%든지 얼마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나라의 教育政策이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豫算確保조차도 바로 좌절이 되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참 대통령 또는 교육정책 책임자의 의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幼兒教育 支援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幼兒教育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차 강조되었습니다마는 99年度 教育部 豫算案에 幼兒教育 관련예산중 주요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기본사업비가 올해보다 153% 증액되어서 4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반값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教育豫算 對比 幼兒教育 豫算이 OECD 각국 하고 비교한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 했습니다.

전체 교육예산중에 幼兒教育 豫算比率이 OECD 각국하고 비교한 것을 보니까 덴마크 14.6%, 체코, 헝가리 12.4%, 프랑스 11.5%, 스웨덴 16.8%, 좀 적은 나라들이 미국 3.5%, 일본 1.6%, 영국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해서 보면 7%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1%도 안되는 0.1%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幼兒教育을 말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人性教育을 하고 창의성, 감성 이런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렸을 때의 교육을 등한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도 私立幼稚園

이 전체 유치원의 절반을 넘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教育部에서 그 동안에 幼兒教育 말을 하면서 거의 타성적으로 전년 또 전전년의 기준에 따라서 타성적으로 예산편성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幼兒教育에 대한 대폭적인 豫算增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教育情報化와 관련해서 이것이 標準化된 규격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國政監査시에 初·中等 教育情報化事業에 있어서 학교전산망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교육부의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1,218억원중 37.5%인 457억원이 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98년9월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6개 市·道教育廳의 학내전산망의 실태를 보면 앞으로 유통이 보편화 될 동영상자료와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소화할 수 없는 이런 규격으로 설치된 학교가 총 1,000개교중에서 570개교가 됩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는 앞으로 다시 전산망을 새로이 구축해야 되는 이런 重複投資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學校電算網 構築事業이 標準化된 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선학교 자율로 규격이 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學校電算網이 이미 설치된 학교중에서 멀티미디어 수업을 소화할 수 없는 규격으로 학내전산망이 구축된 570개 학교는 내년도 학교전산망 설치에 포함시켜서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學父母團體에 대한 지원 이것은 정말 전면 유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부모단체가 얼마만큼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이 특정단체들에게 나누어

주기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실적도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市民團體, 지금 그렇지 않아도 豫算所要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학부모단체 같은 데까지 지원할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가?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학생, 교원들에게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도 새로이 增築을 해야 한다든지 缺食兒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주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부모들에게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서 이것은 全面 留保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許男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委員입니다.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정부의 一般會計豫算은 6.6%인데 교육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 1조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2%나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절약 절약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다 그러는데 이것은 올리고 남겨서 사업을 좀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教育稅도 낮추고 사업도 줄이고 위축이 되는데 교육부는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다른 데는 예산을 올리자고 하는데 교육부는 오히려 예산 깎아 가지고 잘한다 그러는데 혼자만 잘하는 것인가, 교육이라는 것은 예산을 자꾸 올려서 잘 챙겨쓰고 확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왜 그런 思考方式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私立大學을 先進國과 같이 수준을 높이자면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원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人性教育豫算이 4억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교육이 제일 안되는 것이 인성교육이거든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칼로 찌르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그렇고 그래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形式上 해놓고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인성교육 잘하기 위해서 教育目標도 세우고 實踐方案도 세우자고 하고 그것을 하자면 지금 예산의 몇 배가 더 드는데 이렇게 형식상으로만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결들여서 學父母團體에다가 3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까 李相賢 委員님 말씀이 있었지만 옛날에 여자들 치맛바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여자들 학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즘은 치맛바람을 자꾸 일어나게 해요. 여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니 이것이 참 딱한 일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의 교장, 이름은 말하기 힘들지만 민주시민교육회 회장 학교에 와와 하는 사람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 그것을 따 가지고 그것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치맛바람 가지고 학교 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치맛바람 가지고 시비가 되고 운영위원도 하고 뺏고 하고 와와 하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골치 아프게 되었는데 이것이 학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削減해가지고 人性教育豫備에 넣도록 하세요.

99년도에 失職者 子女들이 28만3,000명이 되는데 그 學費를 지원할 예산이 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直答을 하세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金許男委員 앞으로 세워야 된다. 전체 돈을 잘 아껴 쓴다 그래가지고 전체 예산을 8.2%나 내려놓고 이런 아이들의 學費支援해 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제부터 追更豫算으로 올리겠다 이런 어리석은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안하고 와와 여자들 치맛바람 일으키게 하는 이것이 무슨 꼴이오? 어찌자는 것이오?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를 다녀야 그 다음에 밥도 주고 뺏고 주고 그럴 것 아니오? 學費가 없어서 학교 못다니는데 어떻게 밥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오? 우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금년 예산은 5월에 대개 成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협의를 해나가는 중에 금년에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추경으로 잡혀 가지고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얘기하기를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추가로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요청을 백번이라도 천번이라도 할 수 있지. 先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비를

내야 退學을 맞지 않고 학교 다닐 것 아니요. 학교를 다녀야 食費도 주고 뒀도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선후가 바뀐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말 어린애도 아니고 나는 教育을 하자는 것인지 안하자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어. 나는 이번 예산을 보고 딱해서…… 엉터리로 그저 와와 어찌자는 것이야.

교육을 무슨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신없이 와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꼴이요?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소?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4年制 大學은 지원이 많은데 專門大學은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문대학을 정말 잘 양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잘해야 할텐데 괘시해 버리고 이것은 예산을 다시 짜서 완전히 4년제 대학처럼 다는 못하더라도 한 절반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너무 高級化되는 것보다는 專門大學을 養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년제 대학을 나오니까 高級化되고 실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양성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活性化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98년도 學習準備物 豫算으로 초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8,000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市·道教育廳을 통해서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학교로 가는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얼마씩입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1인당 비용이 學習準備物 內容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계산해서 줍니다.

○金許男委員 그럼 쓸 적에 이것을 總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학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느 學校校長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을 개인당 얼마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주어서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해놓으면 이것을 거기에 맞추려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장한테

委任해서 정말 필요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한정을 딱 해놓고 그것만하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教育部次官 趙宣濟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放課後에 教育을 하고 있는데 명년 예산에 그런 예산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금년에도 예산 짜여져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特別交付金에서 일정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교부금 가지고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一定額을 配定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고하게 안서 있어서 소위 말하면 과의를 없애면서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방과후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는 딱 막아버리고 하나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지 못하는데 이것이 목적에 부합되게 시행이 되도록 확고한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許男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範珍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委員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世界水準의 大學院 育成 및 優秀地方大學 支援事業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0억원이 계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500억원은 대학원 육성에 나머지 500억원은 우수지방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상태에서 豫算만 確定이 되면 자칫하면 京釜高速鐵道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 교육부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동안에 言論에 수없이 보도된 서울대학교의 구조조정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서울大學校 構造調整이 결론이 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計上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職業教育 豫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實業系 高等學校에 대한 지원이 금년에는 973억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절반수준인 49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專門大學에 대한 支援이 1,660억원에서 16.9%가 증가된 1,94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高等教育이 普遍化되어 가고 있고 또 産業人力의 質 向上이 요청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職業教育의 비중이 점차 전문대학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중등교육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교수로는 40.8%이고 학생수로는 4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工業系 高等學校 學生數를 2000년까지는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해를 산업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정책목표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문대학에 집중되는 것은 實業系高等學校 教育을 荒廢化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4년제 대학 지원예산에서 깎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教育情報化 事業과 관련해서 모든 교원들한테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하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業務의 量으로 볼 때 꼭 교원 한 사람한테 PC를 한 대씩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教育財政을 浪費시킬 요소는 없는지 의문입니다.

내년 예산에 3만8,491대분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9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再考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원 두 사람에게 한 대꼴로 하면 안 됩니까? 한 대씩 꼭 주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失職者 子女에 대한 學費支援 豫算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반기에는 市·道教育廳 教育費 特別會計豫算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했고 후반기에는 1,000억원의 國庫支援金을 통해서 실직자 가정 중·고생 자녀 25만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來年度豫算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이것이 失職者 子女에 대한 學費支援이 금년에는 필요하고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왜 예산반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根本적으로 教育財政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李相賢 委員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99년도 歲出豫算이 98년도 2차 追更豫算과 비교해서 5.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조6,000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教育財政이 축소되어 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教育改革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이 公債를 발행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공채를 발행해서 追更豫算을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재정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薛勳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精神文化研究院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보니까 勤務狀況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연구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작년 97년도의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도 나와 있는데, 60명 중에서 하루도 결근 안하고 1년내내 근무한 분이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여명은 전부 다 결근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韓國教育開發研究院은 98년 근무상태를 보면 지금까지 결근자 1명입니다. 그런데 정신문화 연구원의 98년 자료는 결근 안한 사람이 지금까지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결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缺勤日數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결근일수가 작년에 보이면 94일 되는 사

람도 있고 1년 중에 133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 9월말 현재까지 구범모라는 연구원은 64일간 결근했습니다. 1월1일부터 해서 9월말까지 64일간 결근했고 또 안택원이라는 연구원은 92일간을 결근했습니다. 한 달에 한 열흘씩, 17일씩, 12일, 13일씩 이렇게 막 빠져요. 아예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참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精神文化研究院에 우리 교육부가 출연한 出捐금이 98년도에 72억 더 되는데 물론 이 예산은 한 89억, 90억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人件費가 57억이나 됩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精神文化研究院 院長 指針이 出·退勤을 자유롭게 해라 뭐 그렇게 지침을 하는 모양이에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것하고 아예 안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올 9월까지, 앞으로 12월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근일수가 25일, 14일, 24일, 보통 20일씩 있고 그래요. 9월말 현재까지 제일 많은 사람이 92일이고 64일, 45일, 28일, 30일 참 이래놓고 이 사람들 다 그냥 월급 받아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法的인 措置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教育部나 精神文化研究院 쪽에서 안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얘기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純粹基礎科學分野에서 産業體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연구지원정책으로 79년부터 해가지고 근 20년간 죽 기초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론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에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5월에 政府機構간에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사업을 대학부설 연구소 지원사업에 통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99年 來年度 教育部豫算案에서도 基礎科學研究所 支援事業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대학부설 연구소 지원사업의 배정액이 70억밖에 안됩니다. 보통 한 200억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大學附設 基礎科學研究所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거기에 따르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高級科學人力도 나올 수도 없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을텐데 그것도 중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理工系 大學이 이렇게 되면 결국 不實化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基礎科學을 育成을 해야 한다고 사실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고 기초과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에서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초과학이 홀대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99年度 豫算案에서 이것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다시 再配定을 해가지고 기초과학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연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薛 勳 委員께서 말씀하신 그 純粹基礎科學, 수학·물리·화학 등 이 기초학문에는 기업체에서도 연구비를 별로 들이지 않는답니다. 해마다 153억 정도를 그 동안 주어왔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것이 다 삭감된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서 이번 예산항목에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언급이 안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해외에 이민을 정식으로 보낸 나라라는 파라과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에는 初等學校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시설까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만들면 남미에 있는 주변나라에서 모두 거기에 와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 어찌 보면 저희가 外交貿易通商要員을 저희 돈들이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 아예 다시 자기 나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9억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배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배려해서 우리가 상정적으로라도 정식으로 이민을 보낸 나라의 우리 어린이들이 自矜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薛 勳 委員님, 말씀하시겠어요?

○薛 勳委員 예, 한 가지 빠졌습니다.

江原大學에 醫大를 新設시켜준 것이 95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醫大를 만들어 주고 난 뒤로 거기에 제대로 된 豫算配定을 안해 가지고 그냥 의대만 있지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교육도 지금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新設시켜 주었으면 제대로 豫算支援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것은 아마 장관께서 57억을 이번에 豫算廳에 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豫決委員들께서 꼭 그 항목을 넣어 주시면 그 대학에 병원이 아마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政府側 答辯準備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喜卿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讀書教育強化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폭넓은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독서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해가지고 讀書教育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과거의 독서교육은 독서감상문 쓰기, 발표, 경연대회 중심으로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讀書教育 擔當敎員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해당 학년에 적합한 도서를 보다 더 폭넓고 엄정하게 선정을 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을 늘려주고 讀書環境을 조성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주 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大學 無試驗 銓衡制가 되면 이 분야에 대

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喜卿委員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경연대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현재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 위원회가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방향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學父母團體에 대한 支援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부모님들이 학교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학부모의 날”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들의 자기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교원에 대한 연수가 필요한 것처럼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學父母意識을 갖도록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교원들이 실시하거나 市·道教育廳에서 실시하는 것도 계속 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역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學父母團體, 教育專門職團體 이런 데가 생겨나면 그런 데를 통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략 일반 시민단체에서 하듯이 반액 정도의 비용을 Matching fund로 해서 自體費用 半 支援金 半 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학부모단체나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學父母들의 意識改革이랄지 내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단체들은 어디까지나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생겨서 자기들이 하게 놔두어야지 교육부가 학부모, 여기에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돈을 주어가면서 무엇을 권장한다거나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성에서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각 단위학교에서 만나도록 놔두어야지 교육부에서 자꾸 학부모들을 만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론을 들어보려고 그러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여론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여러가지 教育活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부모단체들이 완전히 그런 것을 자비만으로 할 수 있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金貞淑委員** 자비로 할 수 없으면 이런 활동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디에서 돈을 얻어가지고만 하려고 하는 관행, 어디에 의존해 가지고 하려는 이 자세가 그 동안에 있었던 官邊團體들의 생리였어요. 관변단체를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왜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드려고 합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官邊團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金貞淑委員** 이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學父母團體 5개에다 3,000만원씩 준다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5개가 어디 어디인가 밝혀주시고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발상이 틀렸어요. 學父母團體를 교육부 밑에 놓고 官邊團體를 만들어 가지고 여론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학부모들을 왜 교육부가 직접 만나야 됩니까? 교육부는 教育行政에 도움을 주는 부서이지 학부모들을 만나서 무슨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슨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왜 교육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요?

(咸鍾漢 委員長, 李源馥 幹事와 사회교대)

○**鄭喜卿委員** 장관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제목을 學父母 意識研修라고 해놓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방면으로 하시면서 사실 학부모의 의식을 교육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意識教育 내지 研修” 제목을 바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이 무슨 特定團體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의 의식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저희가 意識教育하는 연수를 하기 위한 所要豫算이 들면 그중에서……

○**金貞淑委員** 학부모들의 의식교육 안 해주어도 教育政策만 잘 하고 학교에서 교육만 잘 시키면 학부모들은 아무 불만이 없이 잘 따라 옵니다. 무슨 학생들의 의식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학부모형들의 의식교육까지를 교육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단체에다 준다고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직접 교육을 나가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官邊團體를 만들겠다는 소리이지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薛 勳委員 金貞淑 委員**님께서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같은데 이것이 官邊團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를테면 지금 장관께서 제목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참교육학부모라든지 學父母團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社會團體들도 있습니다. 政府豫算을 지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왜 나쁘다고 하십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官邊團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교육부에서 그럴 뜻은 추호도 없을 뿐더러 관변단체면 여당인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이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관변단체가 그런 관변단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朴承國委員** 학부모가 모이면 흔히들 돈을 걷어서 학교에 주는데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아까 참교육학부모회라든지 그것도 다른 학부모회가 있다고요.

○**薛 勳委員** 그러면 지금 政府支援을 받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가 다 官邊團體입니까?

○**朴承國委員** 官邊團體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부모들이 모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들 학교에다 자기 포켓에 있는 돈을 내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요. 지원을 하는데 한 쪽에는 정부가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무엇이고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 주어도 자기 子女 教育시키기 위해서 다 성원하고 또 이런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갑니다. 다 가 가지고 하는데 돈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鄭喜卿委員** 이렇게 예산에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외의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교육부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은 사실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어머니 교실이라는 것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heading을 바꾸어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小委員會

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은 그 쪽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장관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金貞淑委員** 저도 計數調整할 때 하겠지만 학부모의 교실, 이런 것들은 一線 單位學校에서 하면 됩니다. 단위학교에서 하게 놔두고 교육청에다 教育自治, 自治하면서 학부모들의 의식까지 교육부가 다 챙기고 앉아있으면 교육자치가 언제 됩니까?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제가 듣기에는 제가 너무나 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단체들 몇 개를 뒤에서 돈을 대주면서 말하자면 지원을 하면서 教育改革이다 教員停年이다 할 때에 여러가지 목소리를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활용할 의도가 보여요.

이런 것은 더 복잡해지고 갈등만 야기할 뿐입니다. 教育發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학부모들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가지고 다섯 단체에다가 3,000만원씩인가 돈 대주는 것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꺼림칙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야 합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내겠어요.

○**委員長代理 李源馥** 다음 답변 주시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다음에 專門大學의 注文式 教育에 대한 支援事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의 전문대학 교육의 큰 방향 중에 하나가 현장과의 産·學連繫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개 졸업하고 인턴으로 간다든가 일정 기간을 거쳐서 취업하니까 再教育費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가지고 대학에 다니면서 아예 産業體의 주문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주는 이런 주문식 수업이 독일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職業教育에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우리도 지금 지역의 산업과 요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산업체가 그 대학에 필요한 설비까지 지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注文式 教育을 통해가지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철저히 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鄭喜卿委員** 저도 그것은 찬성인데요. 그것도 역시 말이, 우리가 産·學協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뭉뚱그려야지 주문식 그래놓으니까 짜장면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어휘의 정서적인 느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까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馥** 그 문제는 우리 鄭喜卿 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오늘 레포트에는 주문식이라는 용어가 왔습니다마는 注文式이라고 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문식 주택, 주문식 메뉴 이런 식의 어감이 오니까 용어를 적절하게 다시 재고해 주시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더 적절한 용어를 찾으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대통령 訪日時 兩國間 交流事業의 後續措置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방일 교류사업 교육분야가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 工科大學에 유학생을 2000년까지 100명씩 파견하는 것이 있고 한일중·고생 교류사업이 있고 교원교류가 있고 공동학술연구가 있고 대학간의 교류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工科大學 留學生 派遣部分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外交通商部에 交流豫算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도록 정부부처내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中·高生 交流事業은 10년간 1만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10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1 대 1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중입니다마는 아마 3 대 1이나 4 대 1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시·道教育廳 차원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鄭喜卿委員**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다음에 韓日教員交流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99년부터 역사, 환경, 양국어 언어 이런 것을 80명씩 교류하려고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방일 시간이 예산편성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韓日教員交流에 관한 예산이 현재로 보아서는 1억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大學院中心 大學 育成事業計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事業趣旨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國際競爭力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제학술 논문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대략 한 7,500편 정도 됩니다. 게재되는 논문이 7,500편 정도 되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미미한 숫자나 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1,300편, 과기대가 한 1,300편, 그 다음에 포항공대가 한 600편, 나머지 대학들이 200편, 100편, 300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한 7,500편 정도가 게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美國 같으면 한 26만편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3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日本 같은 경우도 한 6만편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8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선 편수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篇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引用頻度인데 인용빈도로 보면 질이 더 떨어집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에 있는 대학보다도 인용빈도에서 보면 더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학문이 발전하기도 어렵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대학원이 없다 보니까 좋은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서 대개 外國留學으로 나가버리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경 이 예산이 연간 10억불 이상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외국에 海外留學費로 송출되는 것이 지난 해에 13억불이었습니다. 올해에는 IMF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7.8억불 정도로 대폭 줄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해외유학으로 송출되는 비용이고 非公式的인 것은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약 10억불 이상의 해외유학비를 쓰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학문의 수준과 기술개발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의 역량은 동경대학교 하나의 논문 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國家의 將來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좋은 大學院을 국가차원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최소한도 한 두 개라도 만들어서 競爭力을 올려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섯 개 대학을 重點育成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대 등 해서 다섯 개 대학을 중점육성하고 있고 어느 나라든지 재정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重

點育成하는 대학을 대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대단히 취약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에 常任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研究中心으로 하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教育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최소한도 급하게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중심 대학을 하나라도 먼저 양성을 해서 현재 우리의 技術開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대학원 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馥 幹事, 薛 勳 幹事와 사회교대)

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크게 해서 저희가 2,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서, 대학원 중심대학을 만들려면 據點大學이 튼튼해져서 거기에서 나온 인력이 국가차원의 대학원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점대학을 전국 단위에 한 10개 정도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거점대학을 통해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技術人力으로 양성이 되도록 하면서 가능한 외국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가야 되지만 좀 덜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억은 지역의 據點大學 육성하는데 쓰일 예정이고 다음에 1,000억은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되는 분야, 생명공학이라든가 반도체분야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 競爭力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를 豫算案이 확정된 후에 외국에 계신 재미학자라든가 국내학자라든가 또 바로 외국인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분야를 한 5개 내지 7개 분야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프로젝트에는 대학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大學과 企業體와 地域 自治體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모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제가 분야가 7개가 되면 14개 과제가 될텐데 한 과제당 두 팀씩이 선정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公募節次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 1,000억 정도는 프로젝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억은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大學院 中心大學으로 가려면 학부중심으로 되어

있는 大學構造를 改編을 해야 됩니다.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쪽에 더 역점을 두려면 학부의 숫자를 줄이고, 학부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중심의 圖書館이라든가 研究施設이라든가 寄宿舍라든가 그런 하드웨어를 갖춰 주어야 집중적인 研究人力을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은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는 쪽에 쓰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제를 응모를 하다 보면 理工分野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核心分野 課題選定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實行計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핵심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金貞淑委員**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혼돈을 하는데요. 그 1,500억을 지금 어느 일정한, 서울 대학이면 서울대학을 통해서 大學院中心 大學院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프로젝트를 받을 생각입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우리 장관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은 외국에 실린, 이렇다 할 學術誌에 실린 論文篇數도 작고 학문의 질이 좀 저하된 것 같으니까 학문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혼돈이 와요.

이 1,500억을 확보를 하려는 것은 서울大學을 지금 밀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서울대학을 대학원중심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教育部長官 李海瓚**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00억 중에서 500억은 地方優秀大學을 육성하는데 들어갈 예산이고요. 그 1,500억 중에서 1,000억은 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特定大學을 전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응모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金貞淑委員** 이것이 서울대학이 아닙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1,000억은 프로젝트베이스이기 때문에 특정대학을 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학문의 질을, 대학의 질을 올리겠다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학문의 질을 올리려면 저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그러면 '우리 大學의 秀越性を 높인다'할 때요, 論文이 國際水準에 미흡하고 많이 안 실린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 교수들이 외국의 유명한 대학수준에 비해서 연구가 부족하고 떨어집니다. 교수들 수준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 大學教授가 되는 과정은 옛날에 해방 이후에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지금 대학 교수들이 있어요. 大學校도, 學部도 안 나온 사람들도……

우리 나라 大學教授들의 質이 先進國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져요. 교수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훌륭한 학생들을 지도를 못해요. 지도를 못하니깐 결국은 또 훌륭한 교수들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외국에서 학문적인 캐리어가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와서 받을 못 붙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討論文化도 아니고 다 경계를 하고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 급해요. 그 실력있는 교수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大學社會에 와서 연구하고 티칭(teaching)할 수 있는 풍토를 教育部가 나서서 개선해 주는 것이 먼저이고 교수들 대우를 올려주면 당연히 좋은 교수들이 옵니다.

이런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훌륭한 교수 밑에서 훌륭한 학생이, 논문이 나오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지금 大學教授들 전반적으로…… 물론 최근에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 있어요. 그러나 全體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학문의 질이 왜 떨어지느냐, 이것은 누구도 이런 말 안 할 것입니다. 大學教授들의 質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올릴 생각을 하면서 순서를 밟아서 우리 學問研究의 질을 높인다고 해야지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이것을 해봤자 砂上樓閣이라고요.

○**委員長代理 薛勳** 金委員님, 이것은 小委員會에서 다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金貞淑委員** 소위원회 가도 숫자가 모자라서 결국은……

○**委員長代理 薛勳** 金委員, 오늘 다루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할 것

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오늘 장관 답변을 지금 들어야 합니다.

○**金貞淑委員** 나는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서울대학을 大學院中心의 어떤 우리 나라의 샘플로 하나 정도는, 정말 우리가 아직 初等學校 在來式 化粧室 하나도 못 고치고 있고, 해결 못하고 있고 過密學級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고 하면서도 지금 엉뚱하게 이것 하나는 중국이 아까 5개 있다는 예를 들어가시면서 샘플로 하나를 선진국 수준까지를 올려놓을 야심작이지요?

그 모델을 서울대학을 삼아서 해야겠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서울대학이 아니네요? 어디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컨소시엄 형태로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더 애매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설득을 시켜주든지 지금 1,500억 플러스 거점대학으로 뭘 어떻게 해서…… 지금 그 거점대학이라는 것도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또 500억 해서 2,000억을,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지금 IMF體制에서 教育費를 지금 6% 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가 그것도 못하고 5%도 안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정말 緊縮財政으로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학문의 우리 연구수준을 높인다, 또 학문의 질을 높인다 할 때는 순서가 大學教授들부터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대우를 잘해준다거나 유능한 교수들이 와도 마음놓고 토론도 하고 학생을 마음놓고 지도할 수 있는 대학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지금 長官께서 말씀하시는 식대로 하면 이것은 뭔가 교육부가 또 아니면 내가 장관으로 와서 뭐 이런 것 좀 한건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밖에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설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논리로 계속 가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들으세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李源馥委員** 장관님, 제가 조금만 여쭙어 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500억은 지역거점대학으로……

○**委員長代理 薛勳 李源馥 委員**, 지금 이것은 다 小委에 가서 또 논의해야 될 텐데……

○**李源馥委員** 아, 小委에 가서 다루는 것 압니다. 소위에서 몇 사람 위원들이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고요 全體委員會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委員長代理 薛勳** 알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小委員會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장관 얘기를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습벽이 좀 있습니다.

장관하고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잘라 가지고 중간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무작정 길어집니다. 중간에 토막을 내지 말고 그 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답변을 신중하게 듣고 그리고 또 질의를 모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중간 중간에 토막을 내버리니까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지금 金貞淑 委員께서 어쨌든 뭔가 의견을 주는데 그것을 끊은 것은 사실 위원장입니다.

좀 들으세요. 거기도 듣고 또 장관 답변듣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듣는데 자르고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장관님 답변주신 것 가운데서 거기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綜合的으로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그러고서 질의를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중간에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李源馥委員** 그러면 일단 먼저 끝까지 다 해봐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제가 장관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源馥委員** 충분히 하세요. 좋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언더과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개의 거점대학을 충실히 육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력을 경쟁력이 있는 대학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은 그렇게 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대학원의 분야는 어떻게 역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國家競爭力을 가져야 되는 분야들, 특히 21世紀에 들어가서 가져야 되는 분야를 독일의 경우는 보통 5개 분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분야가 과연 우리한테도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教育部公務員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國際的인 그런 眼目을 가진 교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제를 선정해야지 잘못 졸속하게 선정하면 그 분야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갈 지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는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豫算案이 확정된 뒤에 分野選定作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5개 아니면 7개 분야 정도를 선정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응용학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순수기초학문 분야가 토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순수기초학문에 대한 것은 국제경쟁력이 바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應用分野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순수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예산이 같이 들어가 주어야만이 연계해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1,000억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의 우리 연구는 대개 교수 개인 아니면 한 2-3명 이런 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좋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단위를 키워 가지고 研究教授의 숫자가 최소한도 2-30명이 되어서 한 팀이 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研究助教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데, 한 대학의 교수가 절반을 못 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A라는 프로젝트를 어느 대학이 받으면 그 대학의 교수는 그 중에서 研究員이 10명이 필요하면 5명만 쓰고 나머지 5명은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가 참여해서 共同研究팀을 만들도록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 契約制로 해서 外國人教授를 데려와도 좋고 國內教授를 써도 좋고 그리고 외국인교

수를 데려올 경우는 계약을 맺어서 데려오니까 국내교수의 인건비 개념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自律的으로 契約을 체결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尖端分野를 이끌어 가려면 外國教授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어떤 대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학은 독일에 있는 큰 회사의 아시아지역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독일에 있는 공과대학과 그 회사와 국내에 있는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精密機械分野 같은데……

그런 케이스로 응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國內學者들만을 위한 교육, 국내학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첨단연구가 아니고 진짜 國際的인 研究水準을 갖는 프로젝트를 1,000억 가지고 7개 프로젝트를 하니까 평균 한 15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이 교수들의 그냥 연구지원 차원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大學들이 準備作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500억은 아까 하드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研究生들이 할 수 있는, 이것을 7개 분야에 14과제, 아니면 5개 분야에 10과제를 하다보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서울대나 科技大 아니면 浦項工大 정도가 이런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지금도 현재 SCI에 게재된 논문이 400편 이하인 대학에서 이것을 綜合的으로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대개 서울대, 과기대, 포항공대 이런 대학들이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곳인데 科技大는 저희가 소관하는 대학이 아니고 科技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학이고 國立大學으로서 서울대가 저희 教育部가 소관하고 있는 대학인데 서울대의 大學院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대학원에 별도의 연구시설이나 도서관이나 기숙사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는 서울대의 構造改革 차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학원 기숙사, 대학원 도서관, 대학원 연구시설 그러기 위해서 서울대는 학부를 지금 대폭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의 정원은 늘이고 학부의 정원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어 서울대를 研究中心大學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억은 그런 용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1,000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공모과제를……

○李源馥委員 지금 그 500억은 학부구조 개편한다는 그 500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학부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 500억은 서울대학에 대학원……

○李源馥委員 아까 말씀 가운데 2,000억 가운데서 500억은 지역거점대학 10개 대학에다가 하는 것이 500억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0억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비용으로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500억은 1,000억 가운데 또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 또 500억을 학부구조를 개편하는데 500억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학부구조 개편이 아니라니까요. 대학원 중심으로 서울대학을 전환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大學院 施設擴充豫算이 대학원용 기숙사, 도서관, 연구시설 그 다음에 地方據點大學과의 共同研究施設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학원 연구시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약 500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李源馥委員 아까 말씀하신 학부구조개편인가 하는 것, 하드웨어 구조개편 그 부분의 이행이다 이런 얘기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학부구조 개편은 아니라니까요.

○李源馥委員 아니 아까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李源馥委員 아니 지금 그 예산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표현이 잘못됐든간에 500억 얘기하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예산은 대학원중심의 대학원 시설예산으로 쓰이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자체를 학부중심에서 대학원중심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생의 정원도 줄여나가는 것이고 교수들은 대학원쪽에서 더 뽑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이쪽 대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부숫자가 대폭 줄어들어야 서울대 중심의 대학원이 아니고 전국차원의, 國家次원의 大學院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학부생은 5,000명 이하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서 이 결과에 의해서 학부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거기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李源馥委員 지금 장관께서 즉 말씀하신 것은 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즉 설명하신 것을 항목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世界水準의 大學院育成 및 優秀地方大學支援”이란 이런 항목으로 와 있는데 지원계획안이라고 하는 안 자체가 확정되어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정리된 것이 교육부 안에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문건이 있습니까, 綜合計劃案같은 것이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7개 프로젝트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7개의 분야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分野의 選定이 이 프로젝트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를 선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외국에 있는 同胞出身의 우수한 과학자라든가 현재 각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도 성과를 보일 분야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1,000억, 2,000억중에서 500억은 이렇게 쓰고 500억은 이렇게 쓰신다고 하니까 1,000억은 아직 아이디어만 떠오르고 있고 ‘해야 된다’ 라는 뿌연 계획만 있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내년 예산에다 1,000억을 달라고 잡아냈는데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것에 대

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서울대학 500억원도 大學院 中心으로 가려면 강의실 같은 것도 사이즈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도 더 할 것이고 강의실도 줄이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데에 쓰는 돈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장서도 들여와야 되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서는 이런 大學이 研究中心으로 간다, 또는 學部中心으로 간다 이런 것 자체가 교육부가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國立大學이라고 한들 서울대학에서는 학부학생을 줄일 의사가 없더라고요. 내가 서울대학 교수 몇 사람이나 만나서 토론을 해보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안에는 학부가 1만8,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숫자만 늘려가지고 1만5,000명 그레가지고 7년 동안에 1조4,000억 인지 1조2,000 몇 억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 하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대의 생각하고 교육부장관의 생각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教育部가 돈을 갖고 돈을 얼마 줄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될 것이라고 교육이 마음대로 研究中心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學部中心으로 가라 하면 가고 하는 성질의 것인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500억을 갖고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의심입니다. 대학이 그렇게 말을 잘 들을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국민의 수준도 올라가고 시민들의 의식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大學教授들의 質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날까지 대학교수가 되는 과정이 여러가지로 많았다고요.

과거에 교수들이 부족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대학에 가서 대충 가르치다가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 어려운 판에 經濟적으로 지금 더 어려워져서 더 쓸데가 많은데 하필 내년에 이렇게 2,000억을 떼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실천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시기적으로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據點 大學을 아까 500억을 하겠다 하는 것도 지방대학 어디 어디인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우리가 조금 이따가 計數調整을 할 수 있으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지금 그 Reporting같은 경우 연구안

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그것때문에 어저께 擔當局長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담당국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담당국장이 저한테 가지고 온 자료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말고 장관께서는 公式적으로 案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안을 봐야 되겠어요.

첫째, 이것이 여러 대학원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大學院 教育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4년제는 또 어느 정도 할 것이고 또 대학원도 우리 나라에 專門大學院부터 해서 제대로 大學院育成策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런 프로젝트를 앞으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다, 꼭 서울대학과 서울대학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명확하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많은 위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서울大 中心體系다, 서울대학과 서울대학원만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長官의 答辯 가운데에서도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500억을 서울대에만 준다는 것이에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하드웨어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李源馥委員 그런데 하드웨어 500억 서울대학을 준다는 것은 올해만 줍니까, 아니면 몇 차 년도에 걸쳐서 줍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계속 연차사업입니다.

○李源馥委員 연차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결국 6개년만 하더라도 3,000억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만 결국 대학원으로 해서 3,000억이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에도 아까 보면 서울大, 科技大, 浦項工大 3개 대학 정도가 수행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서울대 중심으로 줄 수 있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은 이 나라의 大學院의 一般的인 水準 가운데에서 그중에 탁월하게 몇 개를 키우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또 나중에 들어보면 결국은 다 서울대에 주는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 案

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장관님의 머리속에만 있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政府의 案으로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초안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어느 어느 기관을 거쳤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設計用役을 주듯이 사업의 妥當性에 대한 用役을 용역비를 타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고 1차년도에는 그런 것을 할 것이고 많은 Consensus가 일어나서 '그것은 말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事業費를 投入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니까 우선 그 計劃案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아주 좋은 발상이고 국가의 장래를 보아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말씀에 보면 서울大學이나 浦項工大를 중심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長官님이나 教育部의 案이지 대학의 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그 대학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대학 교수를 보고 물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예요. 學部를 안 줄인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듯이 학부는 줄이고 大學院 中心으로 키우겠다 이것은 장관님의 의지이시지 실제 대학하고 앉아서 구상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薛勳幹事, 咸鍾漢 委員長과 사회교대)

○教育部長官 李海瓊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가 이런 研究中心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 동안에 정부가 이것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선우총장님이 개설 적에 이런 프로젝트를 더 구체화시켜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도 그때는 서울 대학교에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정부내에서 豫算을 確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언질을 줄 수는 없었어요.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가 이런 研究中心으로 가려고 하는 대학의 방침을 분명히 정해라 그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것이 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그 대학원에 올 수 있는 숫자를 분명하게 一定量 이상 할애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은 서울대 學部生을 위한 大學院만은 아니다, 지방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 외국으로 안 나가고 국내의 質 높은 大學院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適性과 特性을 살리는 入學政策을 취해주어야 된다, 자기 개인취업을 위한 대학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無試驗 銓衡을 서울대가 더 한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協議過程에서 되었는데 그중 에서 無試驗 銓衡은 서울대학교가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연구중심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제안서를 9월말경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학부를 지금은 5,000명인데 3,750명으로 1,250명을 줄이겠다는 것도 했고 대학원은 지금 정원을 9,000명으로 늘리겠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 직후에 선우총장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논의가 서울대학교 내에서 보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새 총장님이 10월말경에 부임을 하시면 연말까지 이 논의를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서울대학교 내의 논의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총장님이 赴任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研究中心大學院이 사실 저희도 국회에 심의가 있어가지고 10월말까지 그 논의를 매듭을 지어주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서울대학교의 논의가 아직 거기까지 못하고 12월말쯤에 최종적인 결과도 나올 것입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면 투시도나 기초설계라도 있어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장관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2,000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國民의 代表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國民의 代表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국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日柱委員 우리 존경하는 朴承國 委員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로인데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둘째는 人的構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지 첫째 목적이 설정되지 않았고 人的構成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 기대하는 人的構成이 되어 있는냐, 셋째 자금은 여기에서 우리가 세워서 지원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냐 하면 國際大學院 꼴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준비가 안된 데에다가 96년부터 5년동안 1,000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560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2년동안 400억을 주었는데 남은 돈이 얼마 있었느냐 하면 9개 대학에 222억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탁에 넣어놓고 20억이라는 利子收入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教育現場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천 경기의 컨테이너에서 초등학교의 애기들이 공부하면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장고인데 그런데 이 9개 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222억이 남아있다 이런 방만한 豫算執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동경대학을 가지고 大學改革을 하려고 한번 덤뻐요. 그런데 기존세력들의 반발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동경사범대학을 개조한 것이 이바라기예다 세운 쓰쿠바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동경대학을 뜯어고치려고 西歐大學에 많이 다녀온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개혁해 보자 했는데 동경대학의 既存勢力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그래서 師範大學을 개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서울대학, 서울대학 하지 마시고 서울대는 내버려두시고 각도에 국립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대학을 선정을 해가지고 환경도 좋고 教育都市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목을 해가지고 조사를 먼저 하세요.

조사해서 장관이 계획하는 우리 교육부가 계획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대학에다 치밀한 계획을 다 세우고 조사가 끝나고 人的構成이 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합시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꼭 國際大學院 꼴이 됩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래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大統領諮問機構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이것을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대학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제4분과가 바로 이 事業計劃을 점검을 하는 위원회로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부내에는 大學院委員會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分野選定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分野選定은 저희 생각이 교육부가 선정하거나 특정대학이 선정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선정을 위한 special committee를 내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하는데 구성할 적에 국내적인 안목에서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國際的인 眼目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야를 선정해서 公募節次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제대학원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무엇이나 하면 이 분야가 주로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일 약한 것이 무엇이나 하면 産業社會에서의 중간기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附加價值가 높은 첨단분야, 생명공학분야라든가 정밀기계분야라든가 이런 尖端分野에 우리가 전혀 경쟁력을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분야로 우리가 빨리 진입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야되는데 그 分野選定은 보다 신중하게 special committee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감추는 차원에서 7개 분야를 제시 안하는 것이 아니고 分野選定 자체를 엄정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을 선정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學問과 人力과 基盤施設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대학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은 그렇게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金日柱委員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학의 제도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총장을 선출하는 줄 알았어요. 하버드가 360년에 총장이 27명밖에 갈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17년, 18년 이렇게 총장을 했더라고요. 선출하는 대학이 없어요. 스탠포드니 노스웨스트니 主要大學을 다 돌아보았는데 총장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10 몇 년씩 하는 것이예요.

우리 나라는 온통 大學總長을 선출해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大學의 制度부터 완전히 뜯어고쳐 가지고 長期眼目으로 學校發展시킬 준비를 하세요.

○委員長 咸鍾漢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만 논의를 하세요. 小委員會에 가서 豫算問題는 논의를 하시고요.

○李源馥委員 小委員會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 있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설명하시는 것을 자세히 잘 들었는데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필요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나라의 대학이 國家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볼 때 초·중등학교도 國家競爭力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 것, 우선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교실 하나 짓는데 한 7,000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 전국 初·中等學校의 過密學級을 해소할 하는데 2,000억이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개 정도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大學院中心에 500억도 좋고 7개 과제에서 1,500억도 좋은데 언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유아교육법도 초·중등교육법도 교육의 현장에서 놓고 볼 때 豫算이 우선적으로 급하게 지출되어야 될 것이 어느 것이냐 라고 볼 때 大學院이것은 IMF 위기를 넘기고 나서 해도 또 항상 우리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이 大學字가 붙으면 먼저

들어가고 돈도 대학교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중등학교나 이런 데는 항상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야기 하면서도 막상 豫算을 짤 때 보면 항상 밀리거나 적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원중심에 2,000억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우선 초·중등학교의 過密學級 解消나 이런 데에 먼저 또 僻地學校의 문제라든지 초·중등학교의 教室 環境改善에 들어갈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2,000억을 투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이.....

○教育部長官 李海瓚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教育財政 全體中에서 高等教育에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이나 또 中等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이나 또 初等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이나 이것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教育豫算 전체중에서 高等教育豫算이 15%밖에 안 됩니다. 85%가 初·中等教育豫算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제출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大學校 이상에 들어가는 예산이 15% 정도 되고 85%가 高等學校까지 豫算입니다. 이렇게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이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기로는 過密學級이 절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절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가 어떤 競爭力을 가지고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高等教育의 포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다음 成果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獨逸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아니고 教育科學部입니다. 교육과학부의 예산이 1,500억마르크입니다. 교육과학부의 예산이 우리 돈으로 120조 정도 됩니다. 우리 나라 國家豫算의 1.5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독일이 高等人力을 養成을 하고 학문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5% 라는 것이 불과 전부해서 2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대학까지 다 합쳐서 고등교육, 그러니까 전문대 이상의 교육에 들어가는 國家의 財源이 2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초·중등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조입니다. 16조와 2조의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하시는 절박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고쳐나가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가 뭐냐 하면 先導部分에 대한 집중적인 投資를 지난 20년동

안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國家의 競爭力이 떨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研究中心大學은 리딩섹터의 연구력을 빨리 지금부터 강화해도 연구결과는 10년후에 나올 텐데 지금이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李在五委員 그 문제는 教育部 全體豫算을 놓고 초·중등과 고등부분으로 나누면 비교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 나라 初·中等教育의 현실이 16조 아니라 26조를 퍼부어도 國家競爭力이 못 따라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高等教育에 2조원은 액수는 적는데 내용을 놓고 볼 때 지금 大學院中心大學에 2,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넣는 것은 고등교육 전체예산에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한 한데 지금 이 단계에서 대학원중심 대학에 2,000억을 넣기는 過多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토론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2조원이 高等教育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전문대 職業教育쪽이 1,800억 내지 1,900억입니다. 나머지 1조8,000억을 가지고 大學과 大學院 課程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大學院에 역점을 두는 예산인데 대학원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되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1조8,000억이 學部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나라의 大學院 중에서 대학원다운 대학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교육이 대개 學部教育에서 더 발전을 못하고 정말로 공부할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高等人力이 養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션을 거기에 2,000억 정도를 이제 처음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생긴 이래로 大學院教育을 위한 독자적인 시설과 이런 것을 처음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李源馥委員 장관, 지금 장관 말씀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할테니까 들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大學院 全體에다가 예산

포션을 그만큼 준다면 그럴듯하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대학원 전체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大學院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중심이……

○教育部長官 李海瓚 중심은 그렇습니다.

○李源馥委員 중심이 그렇습니다.

아까 豫算에 대해서 적절하게 퍼센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저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初·中等教育에 들어가는 포션이 있고 2년제 專門大學에 쓰여야 될 돈이 있고 4년제에 투입해야 할 돈이 있고 똑같이 중요하게 大學院에 들어갈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우리 나라 대학원에 들어갈 돈은 약했어요. 전반적으로 大學院에 들어갈 포션 전체에 대한 것을 확정해 놓고 프러스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거기에 다 조금이라도 尖端의이거나 내지는 先導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프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주십시오.” 하면 얘기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대학원중심 대학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하실 적에 서울大學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학에게 물어보았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프로젝트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李源馥委員 발전계획안을……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것은 하드웨어쪽 發展計劃案을 제출한 것이지 프로젝트案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李源馥委員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하면 이 자체가 거의 서울대학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 답변해 보세요.

우리 나라에 전문대학이 몇개나 있습니까?

○鄭喜卿委員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예.

○鄭喜卿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에 대한 답변을 세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난상토의하지 말고 답변을 듣고, 長官님께 부탁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委員長님께 부탁인데 저희가 토론하려면 밤을 새도 못해요. 그리고 2,000억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일반 국민교육에 넣지 않고 했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답변을 듣고 토론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源馥委員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鄭喜卿 委員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했고 지금 세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鄭喜卿 委員님만 질의하신 것이 아니에요.

○鄭喜卿委員 그러니까 다 듣고 하자고요. 아직도 답변할 것이 많이 있는데……

○李源馥委員 얘기 다 듣지 않았습니까? 답변 듣고 나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장관님, 專門大學 몇개나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전문대학은 150개 정도 됩니다.

○李源馥委員 학생수는 몇명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재학생 수가 60만 정도 됩니다.

○李源馥委員 150개 전문대학에 60만명이 쓰는 예산을 1년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國家가 支援하는 豫算은 작년까지는 1,500억 정도였고 올해는 대폭 편성을 해서 올려 가지고 1,900억 정도 됩니다.

○李源馥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0개 전문대학의 60만 학생을 위해 교육부에서 豫算支援한 것이 1년에 1,500억 주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더 올라서 1,900억 주는 것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1개 대학원에 한해연도에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규모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1차년도 아닙니까? 이것이 1조5,000억 프로젝트입니다. 1조5,000억 공사를 하면서 設計圖面도 내놓지 않고 豫算 달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밸런스에서 이 나라의 150개 대학의 60만 전문대학생들한테 1,500억 예산을 정부에서 하면서 1개 대학원 몇명되는 사람한테 2,000억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 안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60만명 學生은 학생이 아니에요, 150개 大學은 대학이 아니에요? 1개 大學院만 대학원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이 나라 競爭力이 생겨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무게의 비중을 보아도 이것은 이것대로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밸런스에

서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初等, 中等, 高等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大學院에 대한 밸런스도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專門大學도 밸런스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것들도 그만큼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지요. 어떻게 이것만 중요합니까, 이것 이렇게 주면 大韓民國이 갑자기 先進國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論文 제대로 낸다는 보장 있습니까? 우수논문 내는 것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國家政策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상식적인 균형감각도 없이 豫算編成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자릅니까?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委員, 이제 위원장한테 물어가지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金貞淑委員 제가 2,000억원에 대해서 낮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趙次官이 내 옆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나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귀담아 들은 내용이 무엇이나 하면 대학원중심의 研究中心大學으로 서울大學을 만들려고 하고 學部學生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私教育費로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大學入試制度도 해결하는 것도 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研究中心大學으로 가고 서울대학의 入學生을 확 줄여서 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관의 설명중에는 7개 분야에 프로젝트가 앞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무엇을 어떻게 잡고 이런 엉뚱한 방향의 설명이 들어오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學部定員도 줄여야 되고 無試驗銓衡도 해야 되고 大學院 숫자 늘려야 되고 이런 것을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金貞淑委員 學部定員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이지 돈 1,000억 주면서 프로젝트를 外國에서 누구를 데려다가 企劃을 하고 2·30명 팀으로 만들어 한다고 해서 우리 학문의 질이 1,000억 넣었다고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 논리는 우리한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教育部長官 李海瓚** 학부정원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研究中心大學을 만드는 것이고……

○**金貞淑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확실한 案을 내놓으세요. 그래야 이것이 통과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우리가 그냥 넘겨도 豫決委에 가서 또 말쟁이 됩니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세요.

○**委員長 咸鍾漢** 黃祐呂 委員님 말씀하세요.

○**黃祐呂委員**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장관께서도 자세히 國民한테 얘기해 주시고 위원들도……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자기의 經驗 또 자기의 學的인 배경 또 평소의 教育觀 이런 것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 國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충분히 소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제가 素懷를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는 학력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때부터 급격히 떨어져서 大學校는 世界의 下位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지적하셨듯이 '10년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보겠다' 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동의하리라고 보아요. 그리고 액수가 2,000억이다. '1,000억 정도를 프로젝트에 넣으시고 500억을 하드웨어로 하시고 500억은 지방에 거점대학을 키우시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액수가 1,000억 정도면 1억불도 안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외국의 대학에서 보통 웬만한 큰 프로젝트는 10억불 짜리가 많습니다. 1,000억 정도 쏟아부어도 이것이 적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왜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두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관께서 이러한 투자를 유일한 國立大學에 投資를 하시는데 조건부로 하셔서 이것이 비교육적이라거나 학교당국 또는 교육계 자체의 의사와 달리 어떠한 일방적인 몇몇 학자나 教育部의 教育行政上的 강력한 유도하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대학정책중에, 저도 서울大學 나온 사람입니다. 저도 母校를 사랑하고 국제적으로 모교가 아시아에서 14位圈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탄해 마지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교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개인 素懷예요. '혼자 우뚝 서서 그렇다 경쟁이 없어서 그렇다' 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느끼는 소감

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競爭을 붙여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왜 경쟁이 없느냐 世界大學과 競爭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언어가 다르고 연구풍습이 다른데 경쟁이 안 됩니다. 물론 크게 보아서는 경쟁이 되겠지만 東京大學이나 美國의 예일이나 하버드와 당장 경쟁을 할 기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國內에서 競爭할 수 있는 大學을 복수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國民의 합의를 도출해서가지고 적어도 3개 정도의 대학은 서로 教授도 교환할 수 있고 學生도 교환할 수 있고 研究도 감이라는 학설이 나오면 올이라는 학설이 나와서 서로 討論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발전시키셔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大學에 다시 追加投資가 됨으로써 그 편차를 오히려 키우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일반적인 國民의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을 위원들이 표출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이것이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2002년 銓衡과의 연계점과 大學學部의 定員 줄이는 것과의 연계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것이 석연치가 않은 것 같고 두번째는 이 1,000억을 깎으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워낙 작은 것인데 이것을 500억이나 100억단위로 줄이면 하나하나한 것이 될 것이예요. 그리고 7개 제목도 국제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신 것일 것이예요.

가급적이면 한 500억씩 만이라도, 아까 표현을 하드웨어에 500억 하신다고 했는데 한 500억 정도 더 만들어서 教育部는 첫째 국립대학을 키우셔야겠지만 私立大學에도 조금 줄 수 있는 그러한 豫算을 우리가 한번 늘려볼 수는 없을까? 이것 大統領의 결심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大學總長들의 합의를 얻으셔서라도 두대학 정도를 더 大學院中心으로 키워보신다든지 학문위주로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예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 서울대가 경쟁이 없어 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울대가 SCI논문으로 126위 정도밖에 안되니까 전혀 경쟁

력이 없는 대학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도 서울대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저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런 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대가 우수한 인재를 독점을 해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내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양산해서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의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역할에다가 또 독점하니까 경쟁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7개 영역이 될지 5개 영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역당 2팀을 선정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대 1팀만 선정하면 또 그 분야에서 독점이 되기 때문에 견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팀을 선정해서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분야는 서울대가 1팀을 받고 1팀은 다른 대학이 받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가 2팀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수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서울대교수도 1팀을 겨우 구성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1팀을 받는 분야가 있고 1팀도 못 받는 분야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분야당 2팀이 경쟁적으로 가게 되면서 독점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2팀을 선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그런 데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서울대가 경쟁을 통해서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인재를 독점하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위 1%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학도 발전 못하고 서울대 자체도 경쟁력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3,500명 이하로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머지 인재가 다른 대학으로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방거점대학을 통해서 양성이 되어야 지방대학도 발전하고 연구중심의 대학원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순수교육적인 목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부를 맡으면서 정치적인 판단은 정말로 하나도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쪽 교육분야에 종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앞

으로 길게 보아서, 솔직하게 말씀해서 교육분야가 저의 주분야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의 체계를 잡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대하고도 신문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서울대에 대해서 감사를 처음으로 교육부가 실시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것을 왜 엄정하게 다루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제시한 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방향은 맞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서 20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방향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집약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500억은 서울대로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이고 프로젝트는 경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과정을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이 서울대지 그것이 국가차원의 대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대학원에 진입하기 위한 학부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지방거점대학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대도 2·3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 1,500억을 염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예산청하고 혈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300억씩 나누어 주면 다 물타기가 되어 가지고 나누어먹기가 되어서 하나도 육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해서 하나를 진입을 시켜놓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역량을 모아서 2·3개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응모과정에서 2팀을 모집하게 되면 1팀은 다른 대학들이 가져가게 되는 과정에서 사립대라든가 다른 우수한 대학에 1팀의 몫이 배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진입의 시작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만 논의를 하세요. 이제는 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얘기는 그만 하세요.

○金日柱委員 아니 위원장님,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어째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委員長 咸鍾漢 아, 두고두고 하면 되지 않소.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되니까 나중에 다시 하

세요.

○李源馥委員 아, 지금이 무슨 밤 11시도 아닌데 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됩니까?

○金日柱委員 위원장, 제가 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종결짓는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장관께서 정말 이 예산을 따내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딴 데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어느 대학이다 하는 것을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특정대학에다가 못을 박지 말고 공청회도 가지고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하자고요.

○李源馥委員 제가 장관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원은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고 있고 또 장관님이 꼭 말씀하셔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나라의 대학원들도 훌륭하게 태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법상으로 보면 이것이 뭔가 안 맞는다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보십시오.

대학원을 중점지원해서 170억씩 주고 있었는데 올해도 170억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160억을 주었는데 100억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전문인력 양성할 때도 수혜 받은 몇 개의 대학들이 있고 또 대학원 중점지원할 때도 몇 개 어떤 케이스로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대학원 중심으로 해서 대학원이 앞으로 육성되는 쪽으로 한다면 토털리티로 아까 5개에서 7개 분야를 이렇게 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분야인지 지금은 아직 구체성이 조금 없으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다 그러면 생명공학 대학원 육성사업 해서 여기에 지금 나누어주었듯이 그런 파트로 해서 또 몇 개 대학원들이 컨소시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간다면 생명공학 대학원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5년간, 6년간 이렇게 준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100억씩 곱하기 5년간 주겠다, 또 예를 들면 무슨 전자공학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또 전자공학에 대해서, 뭐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야를 5개, 7개 이렇게 나누는다고 했으니까 5개, 7개 정도를 분야를 나누어놓고 거기서 여러 대학원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여러 대학원들이 와 가지고 말하자면 제일 우수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대학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쪽으로 이런 식의 시스템을 짜 가지고 오면 비교적……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것입니다.

서울대 대학원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나머지 대학원들은 하지 말고 손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머지 대학원들도 나름대로 분야 분야별로는 잘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특히 지방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원, 이런 것들도 이런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한쪽의 대학원로만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이 그야말로 어찌면 학력의 독과점현상이 발생해서 그것이 주는 후유증이 국가적으로 크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1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형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포항공대도 좋고 어디도 좋고 경북대도 대학원 할수 있고 전남대 대학원도 얼마든지 몇 개 분야만큼은 자기네 대학원에서는 딱 따올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다시 짜 가지고 되면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아, 이제 대학원들도 상당히 지원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 줄 것이라고 봐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야별로 공모를 하다보면 7개 분야에서 2팀씩을 모으면 14팀이 될 것 아닙니까? 14팀 중에서 일부는 서울대로 가겠지만 서울대가 한 분야에서 2팀을 다 받기는 역량상 어렵다 말이에요.

가령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李源馥委員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치고 말이지요.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왜 그러면 서울대학만 또 줘니까?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이것도 아까 500억이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500억만 주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6년간인가 7년간에 걸쳐 가

지고 500억씩 하면 이것이 3,500억 프로젝트입니다.

왜 3,500억을 서울대 대학원만 줍니까? 또 다른 문제도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教育部長官 李海瓚**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국회가 이번에 늦어져 가지고 상임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국정감사로 들어가고 국정감사 끝나고 바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 안에 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전혀 없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격앙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동안 준비해온 안을 위원님한테 가서 우리 담당 국·과장이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얘기를 해야 좀 쉬워지지 단편적으로 이렇게……

○**李源馥委員**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보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좋고요.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전문대학 150개 대학, 60만 학생에 대해서 1,5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밸런스상 어떻게 보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억에서 1,900억인데 저도 그렇게 야박한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전문대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 전 정부가 우리 나라 직업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경쟁력을 못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직업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불과 1,500억을 주어 가지고 우리 직업교육을 해왔다는 전 정부는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IMF를 끌어들이 주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직업교육에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시 고쳐나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분야는 삭감되고 줄여

가도 전문대예산은 제가 이번에 35%를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1,900억원대로 전문대 예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내년에 또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연구중심의 대학은 사실상 학비를 받지 못하는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오히려 장학금을 주어야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그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의 단순비교는 어려운 것인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것이 특정대학이라고 보시지 말고 대학원의 하나를 형성해 가는 첫 단계다 라고 보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를 잡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우수한 대학들 어떤 사립대학교 이사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그런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학제만 만들어 주면 자기 스스로 연간 몇 백억씩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어느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투자능력이 있는 데들은 아마 이 모형이 개발이 되면 그 쪽으로 발전을 해가는 대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육성한다 라고 하기는 정부의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李源馥委員** 자, 어쨌든 그 내용, 설계도 보십시오. 그것을 넣어서 소위원회에서 다루시자고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委員長 咸鍾漢** 이 대학원 중심대학을 제대로 설명을 안해 주셔서 일본 같은 나라도 국가예산이 그렇게 많고 그래도 사립대학에는 대학원 중심대학을 못합니다. 동경제대, 경도제대 다 국립대학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대학원 중심대학이 어떤 것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하시든지 하시고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 논하세요.

그리고 계속 답변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그 다음에 實業高 豫算

이 줄고 專門大 豫算이 확충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문대 예산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어서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약 400억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늘리는데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투자예산 중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잘못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업계에 대해서는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를 통해서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행히 교육부에는 특별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보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국가예산으로 한 번 확정되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보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예산에서는 전문대 예산쪽을 확충을 해놓고 실업계고교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 자체예산으로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장관, 잠깐만 좀 멈춰 주십시오.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 중에 국민회의 薛勳 小委員長을 朴範珍 委員으로 보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朴範珍 委員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한나라당 소속 李相賢 委員 대신 李源馥 委員을 보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께서는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다음에 유아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예산이 적었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유아교육을 빨리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예산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유아교육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는데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0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보급과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가 너무 PC등 하드웨어 보급중심으로 정보화예산이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내년에는 조정기로 보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고 연수능력을 늘리는 이런 시기로 지금 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예산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연수도 더욱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는 민간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품질인증제를 실시해서 오히려 정부보다는 민간쪽에서 하는 쪽을 더 촉발시키는 그런 쪽으로 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해서 인증해 주는 쪽을 더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소프트웨어를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朴承國 委員님, 金日柱 委員님이 私立學校 教育環境改善을 위한 私學振興基金 增額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신데 올해에 여러 가지 예산상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豫算審議過程에서 더욱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全體豫算이 지금 減少趨勢이기 때문에 반영이 못된 점은 저희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評價機關을 大企業 내지 民間機構에 맡겨서 상설화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朴承國 委員님과, 金貞淑 委員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평가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민간기관에서 공정성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의 기관은 매킨지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用役費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國家豫算으로서는 용역을 맡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 편이고 대기업에서 평가를 그 동안 해왔는데 大企業의 評價가 어찌보면 각 大學間의 利害關係가 아주 첨예하게 공동으로 작용해서 평가라기보다는 禮遇次元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長期的으로는 民間評價機關을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제 내용 중에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15억씩 들일 필요 없고 한 번 해가지고 3년이나 2년 정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아, 평가를요?

○朴承國委員 그런데 해마다 하면 준비하는 학교가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수업이 안돼요. 이런 점도 고려하고 돈도 또 고려하고……

○金貞淑委員 大教協도 교육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傘下機關은 아니고……

○金貞淑委員 돈을 다 대주잖아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일부만 대줍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교육부의 아이디어나 요구사항을 大教協에다가 좀 강력하게 내려보내 가지고 시정을 하라 그러고 거기서 한 자료를 쓰면 되잖아요. 교육부가 또 나가서 돈 17억 얼마씩 또 써가면서……

○教育部長官 李海瓚 지금도 大教協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公正性和 信賴性에 대해서 사실은 大教協內에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라서 자기 대학이 나쁘게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역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民間機構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데 아직 불행스럽게도 우리 評價慣行이 약해서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承國 委員님이 말씀하신 市·道教育廳 평가를 격년제라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우선 初期段階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한 5년 단위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달리 한다면 이렇듯 신축성 있게 제도를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용 PC보급과 관련해서 國庫支援 97억에 대한 대응투자가 388억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응투자는 教育監님들에 따라서 지금 성향이 다릅니다. 다녀 보셨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들이 情報化事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응투자를 해서 잘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투자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가능한한 99년도의 경우 정확한 시·도별투자 계획을 3월까지 저희가 집계를 해가지고 예정대로 교원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國際專門人力養成特性化事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상임위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事業施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進行過程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된 사업을 저희가 이 단계에서 급격하게 줄인다거나 끊어버리면 그로 인한 副作用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特性化事業에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5차년도까지 일단 끌어가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歲入豫算에 관련해서 來年度의 成長率에 대한 예측인데 정확하게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정부의 公式的인 豫算編成은 대략 1% 정도를 성장할 것을 전제하고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經濟運用過程 속에서 이 편성부분에 대해서 과대하게 편성되었으면 再調整하는 시기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예상외로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그 나름대로 또 歲計剩餘金이 또 발생을 하면 그것은 내년이 赤字財政이 되기 때문에 상환용으로 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직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대략 정부는 공통적으로 대략 1%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NP의 6%, 教育豫算에 6%를 말씀을 하시고 현재 약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6% 공약은 지난 번 常任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것은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금 현실입니다.

95년, 96년처럼 계속 호황으로 갔었으면 역량이 더 늘어나서 가능했을텐데 97년 이후에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選舉公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現實化시켜서 못지킨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 묶여가지고 자꾸 긴말 하거나 다른 소리 해가지고는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벌써 IMF사태가 났는데 이 공약이 6%로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러면 공약을 IMF사태가 났으니까 도저히 6% 안되겠다, 5%만 하겠다고 공약을 바꾸어야지. 6%로 해가지고 지금 벌써 내년예산에 GNP의 4. 몇%입니까?

GNP 전체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4. 몇% 되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4.7% 정도됩니다.

○金貞淑委員 4.2%정도 아니에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金貞淑委員 GNP 전체 틀이 줄어드는데 거기서 더 줄어드니까 이 교육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5% 목표로 시작을 해가지고 4.9%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 當初豫算이 제일 많이 올라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두 번 追更을 하는 과정에서 4.7%에서 4.49%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이번 豫算案 나온 것도 제가 듣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教育部 豫算이 작년대 비해서 지금 제일 많이 줄었다 그래요.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現政府가 教育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는 얘가지요. 無關心이라는 얘기고 또 교육부도 힘이 없는지 아니면 무기력해서 그런지 좌우간 이것을 따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타서 제가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教育豫算은 이것이 國家豫算으로 確定豫算이 아니고 세수에 연계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經濟成長이 되면 저절로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안되면 저절로 줄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가 그냥 增額交付金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재보다도 6,000억이 더 줄게 되어 있는 법령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經濟成長 쪽으로 빨리 전환되지 않으면 교육예산은 앞으로 더 줄 가능성은 항상 構造的으로 깔려있는 예산입니다. 구조가 그

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金貞淑委員 그러나 우리가 教育先進國 또 정치적으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렇게 IMF체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예산을 늘려가서 성공한 나라들도 있어요. 教育豫算을 늘려가지고……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래서 저희가 施設豫算에 대해서는 아까 朴範珍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起債를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起債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후년도, 내후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미리 先執行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不要不急한 쪽으로 잘못 집행이 되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1조원 정도는 바로 기채할 수는 있는데 차제에 그 동안 教育豫算을 효율성없이 방만한게 운영해 온 관행은 좀 다듬어 놓고 기채도 해서 엄격하게 끌고 가야지. 지금처럼 前政府에서 집행하듯이 집행하면 정말로 1조원이 들어가도 효과없이 집행되기가 십상인 그런 구조입니다.

○金貞淑委員 작년 이맘 때 공약을 만들 때 GNP 대비 教育豫算을 6%를 하겠다고 만들 때 우리 李長官께서는 정책위의장 하셨잖아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아닙니다.

그 전년도입니다. 저는 선거기획본부……

○金貞淑委員 여기 公約에 관여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이 공약을 고쳐서 나왔어야 됐어요. IMF가 나면 이것 못하겠다고 고쳐서 나와야지 공약은 6%로 해놓고……

○鄭喜卿委員 그때 관여를 했는데 5년에 걸쳐서입니다.

당년도에 6% 올리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니까요 그것은 앞으로 몇 년을 두고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 당이 다 고쳤어야지……

○教育部長官 李海瓚 다음에 失職者……

○金貞淑委員 이쪽 당에서야 6%를 실천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뭘 고치고 말고 합니까?

○鄭喜卿委員 글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金貞淑委員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가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失職者子女 學費支援 豫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실제로 자녀학비 2,000억을 增額交付金으로 반영해서 지금 했는데 내년예산에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豫算當局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地方教育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範珍委員** 예산을 요구했는데 빠졌어요? 반영이 안되었어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豫算當局의 태도가 조금 처음에 편성할 때에 비해서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鄭喜卿委員** 많이 나오십시오.

○**教育部長官 李海瓚** 새교육공동체委員會 運營支援費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 大統領諮問機構로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전 정부의 教育改革委員會를 발전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最小限의 運營費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이라는 점을……

○**金貞淑委員** 제가 질의를 좀더 할게요.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돈입니까? 지원비라는 것은 그 분들 회의할 때에 식대랄지 그런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여기서 저희가 이 기관이 하는 역할이 教育部가 하는 政策에 대해서 評價도 하고 諮問도 받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또 교육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토의도 해서 저희한테 基本方向에 관한 論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包括적으로 運營費로 지원하면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金貞淑委員** 이 9억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작게 책정하면 작게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액수가감액

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아직 안하셨는데 女性教育政策을 연구하라고 7,0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답변을 주십시오.

○**教育部長官 李海瓚** 女性教育을 위한 事業費 7,300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비, 女性教育프로그램 開發費하고 女性教育研究活動費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말하자면 女性界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民間團體에 대한 보조형식으로 이제……

○**金貞淑委員** 지금 研究費지 이것이 事業費는 아니잖아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이중에 일부는 연구비고요 일부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7억은 있어야 되겠어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金貞淑委員**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반을 뚝 떼어다가 여기다가 보충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도 모자라겠는데……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단체에 대한 연수교육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學父母라면 지금 대부분이 여성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어 주어야 女性教育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女性教育도 그래요. 교육부가 여성 교육을 왜 나서서 합니까? 저는 아까 연구비인 줄 알았어요.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비, 그것도 7,000만원 적다 그랬는데 교육도 하고 무슨 사업도 있다고 하니 이것은 굉장히 놀랄 일인데요.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도 하고……

○**教育部長官 李海瓚**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최소한의 일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李源馥委員** 지금 教育部가 국회에 와가지고 女性教育 政策開發하겠다고면서 7,000만원 올려 가면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항목에 슬쩍 집어넣든가 해야지 창피하게 큰 제목에다가 뽑아 놓고 7,000만원 갖고 1년에 한 나라에서 여성교육정책 한다면서 7,000만원 쓰는 것을 무슨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큰 제목 써가지고 우리도 합네 하고 이렇게 갖다 내놓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政府豫算은 항목이 없이는, 특히 국가예산은 항목이 없이는 임의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李源馥委員** 글자 활자가 크다는 얘기에요.

장관, 말씀 새겨 들으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 다음에 교과연구활동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教室授業을 革新하기 위해서 자생적인 연구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대학교수들 연구하고는 달라 가지고 주로 實踐의인 課題들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비가 대개 市·道 次元에서 하고 있는데 대략 약 500만원 정도씩을 市·道教育廳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740개 연구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교과연구활동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더 확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1,000편에 대해서 올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研究活動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敎員의 質도 높이고 敎育的인 效果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金貞淑委員** 금년에 50억으로 했던 것이 지금 37억으로 조정된 것이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37억은 원래 市·道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억 아까 한 것은 37억 가지고는 시·도에서 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50억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37억 그 프로그램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과가 좋아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이 결과는 市·道別로 좀 다양하기도 한데요. 이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 자기들끼리의 交流를 하고 公開授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교원들의 사기와 수업하는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敎員大學에서…… 具鶴鳳 局長이 갔다 오신 것을 설명을 좀 드리지요.

○**教育部學校政策審議官 具鶴鳳** 學校政策審議官입니다.

지난 10월20일 敎員大學에서 전국에서 약 1,000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서 각 교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분들 가운데 약 63%의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공개하고 있고 또 때로는 학교 내에서 하고 있고 또는 市·郡 單位別로 하고 있고 또 道單位로서 연구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였던 것은 그 敎員, 선생님들이 이미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부로서 무엇을 지원해 줄까를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이 아주 만족하게 일하고 있었고 다만 돈 5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정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敎育의 效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教育部學校政策審議官 具鶴鳳**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효과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수업은 더 공개되어서 이 지원활동을 계속해서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7개 영역에 교과교육 생활지도, 특별활동, 봉사활동, 단체활동, 학교행정 지원분야를 그렇게 놓았거든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학교수업을 혁신하는데 具體的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돈주니까 좋다고 그러겠지요. 더 달라 할 것이고요.

○**教育部學校政策審議官 具鶴鳳** 그날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차 정부가 해줌으로서 학교가 상당히 活性化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학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계속 답변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다음에 Post-Doc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올해에 이 사업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지난 追更에서 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는 바람에 박사후 연수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는데 어려웠는데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Post-Doc이 많이 육성되어야 교수가 연구를 할 적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팀이 되어서 연구를 하는데 Post-Doc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해서가지고 올해 追更豫算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豫算을 저희가 더 많이 編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때문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박사후 연수과정에서 대학에 가서 교수는 못되고 또 취업을 해버리면 원래의 연구기능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인력이 손실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人力管理 次元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Post-Doc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缺食兒童 支援豫算 確保方案인데 지금 약 99년도 결식아동이 실업률을 8%를 기준으로 해서 12만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억정도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을 충분히 아직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결국은 市·道教育費 特別會計에서 일부 지원하고 국고에서 일부 지원해서 하도록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각별하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학중에 지원하는 것은 關係部處들과 협의해서 實務的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12만명의 학생을 50일동안 中食을 제공하는데 약 150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關係部處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貞淑委員 缺食兒童 얘기하면서 失職家庭 자녀들 학비지원 그것을 내가 질의했거든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아까 실직자녀 學費支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0억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올해는 追更때 增額交付金으로 반영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내년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豫算廳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職業教育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긴 말씀은 안드리고 專門大學 支援豫算은 앞으로도 훨씬 더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한해에 대폭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豫算增加率로 보면 26%나 되기 때문에 타 분야 增加率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기는 한데 그러나 총액 자체가 약 1,900억 정도밖에 안되는 미미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教育環境改善事業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의 細部事業豫算의 배분의 합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개년 재정운용계획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5개년 동안에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체계화가 되

어 있지 못한 점이 있고 너무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教育環境改善事業이 앞으로 들어가는 總所要豫算이 11조6,000억 정도가 되는데 보통 2000년까지 5조원을 5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간 1조원씩 넣기로 되어 있는데 7,000억의 특별회계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3,000억의 市·道에서 하는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저도 하나 질의했던 것 같은데 京畿道 내년에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支援對策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뒤에 질의에……

○金日柱委員 나옵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다음에 李源馥, 黃祐呂, 金日柱 委員님에 대해서 特殊教育 支援費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학교가 하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완공이 되어서 학교짓던 비용만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국립 특수학교의 實驗實習機資材를 계속 지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3억으로 지원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 4억이 감소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教育部에 대해서는 特殊教育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부가 너무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特殊教育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내년도에 유념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감축으로 신설학교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기채하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金日柱, 朴範珍 委員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정부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1조800억원의 기채는 가승인 상태에 있는 것인데 지금도 財經部나 豫算廳은 필요한 경우 공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기채를 발행하면 어차피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급되는 것이 내후년도에 상환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은 올해 짓는 것이 좋으나 내후년도에 짓는 것이 좋으냐는 시급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판단은 올해 지을 경우에는 單價가 싸고 人件費가 싸기 때문에 이자를 주더라도 올해 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 것이라면 기채를 해서 짓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내후년에 짓는 것이 된다고 하면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자부담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가 부양되기 시작하면 物價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이자하고 상계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올해에 기채신청을 받으려고 그러합니다.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는 기채를 통해서라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日柱委員 땅값이나 자재값, 人件費 다 싼데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그래서 市·道別 기채소요를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農漁村後繼者 養成을 위해 설립된 여주자영농고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계자 양성을 위한 예산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이 96년과 97년에 地方交付金에서 16억, 25억을 했고 98년에는 19억을 했는데 그 동안 많이 지원이 된 셈이지요. 그래서 豫算當局에서는 더 이상 國庫支援은 어렵겠다는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農漁村後繼者 養成次元에서도 중요한 차원인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豫決委에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이것은 살려주어야 돼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咸鍾漢 委員長님께서 教育部의 敎員研修에 대한 예산중에 초등영어를 위한 연수예산 등만 반영되고 자격연수나 일반연수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敎員의 資格 및 一般研修를 위한 예산은 市·道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國家豫算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市·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것보다도 각 市·도연수원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들의 자격시비가 벌어지고 자질문제가 얘기가 되니

가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가지고 영어 연수하는 것 못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저희가 연수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市·도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市·道教育廳에서 연수하는데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초등 영어교육 연수가 들어간 것은 새로운 정책으로 갑자기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 연수예산 전체는 저희는 政策費만 반영이 되어 있고 연수를 위한 실행예산 자체는 市·도교육청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니까 65세에서 60세로 내리면서 敎員의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금년 예산에 현재 임용되신 선생님들, 몇년 근무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자격연수든 일반연수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그것을 저희가 市·道教育廳 豫算編成 指針을 보낼 적에 지금 위원장님의 뜻을 반영을 해서 지침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師道獎學金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0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는 사도장학금이 재원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수혜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受惠者中 敎師任用率이 57%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장학금이 그 동안 우수교사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데 기여해 왔는데 이제는 師範大學이나 教育大學의 외부장학금이 거의 이것 이외에는 없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師大보다도 敎大는 특히 이런 장학금이 없이도 많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되어 있고 師範大學의 경우도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전체 예결위 과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許男 委員님께서 學習準備部 豫算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학교장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學校長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市·道教育廳 豫算이 충분하지 않아서 市·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학교장 재량하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교육비에서 방과후교육활동을 市·道教育廳別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初等學校에는 방과후교육활동이 비교적 잘되는 편이고 高等學校에서는 入學試驗때문에 이 부분이 약한데 앞으로 人性教育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사 1인당 PC普及計劃의 예산이 너무 낭비 아니냐 하는 朴範珍 委員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교사들이 PC를 얼마만큼 잘 다루느냐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敎員들한테는 꼭 보급을 해주려고 목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60%가 보급이 되었고 보급이 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學校業務의 電算化가 대폭 확충이 되면 교원들의 잠무도 이것을 통해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는 가능한 한 보급을 해서 공유하게 되면 서로간에 학생부 기록관리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급을 목표대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薛 勳 委員님께서 精神文化研究院 교수들의 출·퇴근 상황이 나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체적으로 교수들의 출·퇴근 문제는 일반 교사들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너무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基礎科學 研究所事業에 대해서 李源馥 委員님, 薛 勳 委員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70억과는 별도로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基礎科學研究所 支援事業이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오다가 제 4차 5개년계획이 올해로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일단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基礎科學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學術振興財團에 기초과학용으로 별도로 100억을 추가배정을 해놓은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 연구력 강화에 또 일부가 기초과학 예산으로 쓰일 것이고 大學院中心大學에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중에서도 그 중에 일부가 100

내지 200억 정도가 基礎科學쪽에 투자할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초과학연구소 사업만 가지고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는 基礎科學 事業豫算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그것은 조금 정리해서 어느 파트 어느 파트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가게 된다, 그것을 方法的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薛 勳委員 精神文化研究院 부분은 단순히 그냥 알아보는 정도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계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돈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매듭을 지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지인 KDI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결근하는 사람이 한사람인가 세사람 그랬는데 그쪽만 전부다 안나와요. 그것은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이 안되면 精神文化研究院은 안될 것 같아요.

지금 精神文化研究院 副院長 나와 계시지요?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研究院 뿐만 아니라 다른 大學敎授들도 그 부분에서는 매일같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 심하게 안나온 분을 거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망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教育部하고 의논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副院長 나와 계셔서 제가 하나 물라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研究員들이 의무과제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예.

○金貞淑委員 의무과제는 1년에 精神文化研究院의 경우는 한 편씩……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한 편이 의무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그 義務課題도 다 수행을 못하고 제출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外部受託課題를 근무중에 와서 한다 말이에요. 자기 의무과제 1년에 한 편도 못 내는 사람이 안 내고 있으면서

외부수탁과제를 근무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의무과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다른 財團에 신청해서 물론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저것은 하고 이것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薛勳委員 부원장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충 교수들이 결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결근 쉽게 합니까?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나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薛勳委員 내가 말한 것은 결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결근은 지나치게 하면 안 되지요.

○薛勳委員 결근을 지나치게 하면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일일이 다 불러드릴까요?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알고 있습니다.

○薛勳委員 알고 있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나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는데 부원장께서는 '결근은 당연한 거다' 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薛勳委員 말씀이 나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워낙 그런 식이다' 얘기를 하시네요. 이 결과가 '워낙 그런 식이다'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안 나오는 것 보통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월급 그냥 다 챙겨가고 그럴 거예요.

내가 지적을 할테니까 들어보세요.

정치경제연구실에 있는 구범모 연구원은 1월달에 9일간 결근했고 2월달에도 9일간, 3월달에도 12일간 결근 했습니다. 하루 나가고 하루 쉬고 그랬어요. 4월달에는 하루 결근했고 5월달에는 하루도 결근 안했습니다. 6월달에 6일 결근하고 7월달에 4일 결근하고 8월달에 9일 결근하고 9월달에는 딱 정확히 14일 결근 했습니다.

또 더 많이 결근한 사람은 92일간으로 안택원이 사람은 보통 하루 놀고 하루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근 일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9월달까지 김형효 12일간 결근했고, 지교현 14일간 결근했고, 김경일 25일 결근했고, 이종철 15일 결근했고, 허홍식 14일, 유병용 14일,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그런데 그 중에는 통계가 잘못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薛勳委員 미안하지만 해외파견되어있거나 하면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貴院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알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수탁이 오는 경우에 그 동안에는 보직 교수들 몇 사람이 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것을 다 회담으로 돌려서 하실 작정입니까?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예, 물론입니다.

○金貞淑委員 지난 번에 제가 그 답변을 못 듣고 와서요.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지난 번에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아마 자체내에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프로젝트에 맞는 연구원들을 갖다가 연구를 해야 제대로 되지 그 동안에 해온 연구들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중복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것 시정하십시오.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薛勳委員 그리고 교육부가 여기에 72억이나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데 무엇때문에 72억이나 출연을 해줍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72억 중에서 인건비가 57억이나 들어가요. 전부 다 그냥 집에서 놀면서 그냥 인건비만 57억 씩이나 나가는 이런 식의 출연 왜 출연해 줍니까?

○韓國精神文化研究院副院長 李成茂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薛勳委員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장관, 계속 답변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精神文化研究院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직경영진단을 2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에 대한 보

완작업을 하는데 그때 결과를 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의 앞으로의 위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부처내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精神文化研究院의 發展方向을 내년 상반기중에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江原大學校 醫科大學에 대해서 薛勳委員님이 질의하셨는데 병원이 없어가지고 委託教育을 해 왔는데 그래서 병원을 신축하려고 설계단계에 가 있었는데 춘천이 지금 인구가 25만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3개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병원 전체가 다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서 강원대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결과 春川醫療院을 인수해서 대폭 개수해서 강원대학교 지방병원공사로 만들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나가 있었던 설계비를 시설을 개축하는 설계를 위한 비용으로 전용을 하고 구병동 증·개축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강원대의 입장이 최근에 저희한테 정리되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입장을 가지고 강원대하고 춘천의료원 인수문제도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되고 99년 예산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임위에서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 원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병원을 계속 짓는다는 관점으로 갔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었는데 이제 올바른 방향이 서서 의료원을 인수하여서 좋은 병원으로 개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올바로 잡혔다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게 57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우선 57억인 것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데 전체 예산은 현재 의료원 인수비용이 총 얼마나 될지는 평가를 해 보아야 되고 정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게 될지 또 거기에 부채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수과정이 협의가 끝나보아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질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도장학

금을 교대생들한테는 모두 100% 나가는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海瓚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教育部教員養成研修課長 金 澈 교원양성연수과장입니다.

사도장학금이 전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수대로 각 대학에 지급하게 되면 대학총장이 각 대학마다 임의로 적절한 비율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율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그 동안 교육대학생들은 거의 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教育部教員養成研修課長 金 澈 90년도 이전에 그 때는 순위고사를 치르지 아니하고 국립 사대·교대생 전원이 우선 임용될 때는 전부 학비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도장학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알았습니다.

○黃祐呂委員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失業者 子女들을 위한 學費補助를 장관께서 2,300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하는 것인지?

○教育部長官 李海瓚 아닙니다.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시·도에 보내면 시·도별로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까? 실업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안받는 것이지요.

○黃祐呂委員 그런데 실업자라 하더라도 곧 직업이 생길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장기저리융자를 한다든지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나중에라도 그것을 갚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운데 실업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국가예산에 대한 신중성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국무총리께서도 그 말씀하시는데 연동제의 의미는 우리가 늘 성장가도로 갔기 때문에 教育豫算을 연동제로 한 것이 본 취지이고 자꾸 매년 증액할 수 없으니까 國防費에 준해서 이것은 강화하려고 연동제를 했는데 지금 뜻밖에 마이너스 성장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저도 예결위에 가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마는 이것을 '연동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

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니까 본 취지가 教育財政을 확보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에는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국민 앞에 설득하고 또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教育稅 廢止와 관련해서 지금 국세의 재정교부금 11.8%는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教育稅의 稅目調整과 관련해서 재경부하고 지금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세 세목조정 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정한 몫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財經部하고 오늘도 제가 財經部長官하고 한참 협의를 하다가 왔는데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른 목적세하고는 우리 교육세는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꼭 지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失業者子女 學資金 問題는 우리가 천재지변이 나면 수해를 입어도 학자금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일이니까 수업료 면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師道獎學金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형편이 어려운 만큼 사도장학금을 더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鄭東泳委員** 한 가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基礎科學研究所 事業에 관해서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건의한 것을 보면 내년 예산에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폐지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教育部長官 李海瓚**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鄭東泳委員** 사업은 그렇겠는데 이 기초과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종료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教育部長官 李海瓚** 자세한 내용을 학술연구지원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학술연구지원국장은 조금 이따가 나와서 답변할 때에 그 답변을 하면 되니까 순서에 의해서 평생교육국장 답변하세요.

○**教育部平生教育局長 金容炫** 평생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金貞淑 委員님과 鄭喜卿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실업자대책차원의 補助教師 配置 등 高學歷 未就業者 對策 豫算 270억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므로 이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정부의 失業對策의 일환으로 금년도의 목적예비비에서 270억을 확보해서 전문대 및 대졸취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연구보조요원, 초중등학교의 전산과학실습, 영어수업보조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高學歷 未就業者의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6개월간 연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 예산으로 270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학술연구지원국장 나오세요.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鄭東泳 委員**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4차 5개년계획을 가지고 基礎科學研究所 事業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받게 되는 연구소가 36개 연구소가 있고 평균 4억 정도를 지원받고 전체 150억 규모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5개년계획이 금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대학원연구력강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학술연구조성비 1,000억 가운데 495억을 이쪽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연구력강화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기초과학연구소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東泳委員** 그러면 지난 3·4년 사이에 대개 전국에 있는 69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에 150억 연구비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규모의 지원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까?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예,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명목은 달라도 실질적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鄭東泳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런데 대학교수님들 생각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사업의 명칭이 바뀌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委員長 咸鍾漢 그 연구소에 주는 것 하고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다르지 않소.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물론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153억 정도의 예산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이지요?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오히려 더 늘 어날 것으로 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올해에 기초과학연구예산 자체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으로 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끝을 내는 것이 고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지원자체는 올해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鄭東泳委員 어쨌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 에 지원은 계속 된다는 것이지요?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예, 계속 지원 이 됩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것은 연구소가 아니라 교수연 구실에 조교들을 활용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이지요?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委員長 咸鍾漢 1,300명의 대학원생의 조교가 있 는데 그 학생들이 그것으로 등록금도 하고 코스를 마치는데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教育部學術研究支援局長 鄭相煥 예.

○委員長 咸鍾漢 알았습니다.

다음은 教育環境改善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教育部教育環境改善局長 李基雨 金日柱 委員님 과 朴範珍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日柱 委員님께서서는 地方教育財政 減縮으로 신 설학교 등 여건개선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우므 로 부지매입 및 시설비용이 저렴한 지금 시점에서 기채를 발행하여 신설하면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朴範珍 委員님께서도 부족되는 예산충당을 위하 여는 公債發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地方 教育財政의 構造가 국가로부터의 주세입이 내국세 총액의 11.8%가 교육세로 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전반적인 景氣沈滯로 稅收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 교육재정의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 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98년도에 다른 시·도보다 많은 55개교를 宅地開發地域 내에 新設하도록 지 원을 했습니다마는 豫算削減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에도 新都市 등 학교 없는 지역의 교육기본시설의 확보와 부족예산충당을 위하여 地方起債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金日柱委員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장관께서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海外 韓國學 支援事業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두군 데서 따로따로 하고 있잖 아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에 있어서는 研究施設이나 圖書館施設 등이 한국학술 진흥재단에는 없잖아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金日柱委員 그러니까 海外學者를 招聘해서 지 원하는 사업, 같은 사업이니까 이것을 각각 할 것 이 아니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다가 一元化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그 전에는 한국학술진흥재 단에서 해외 한국학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저희 들 교육부 지원에 의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外務部の 國際交流財團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정은 학술진흥재 단이건 정신문화연구원이건 미미합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른 것이 韓國學術振興財團에서는 資料를 보 내주는 것이 주가 되고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는 韓國學을 하는 사람들을 招請해 가지고 大學院에 서 같이 研修시키고 教育시키는 것입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 자를 직접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文獻들이니 이런 것을 보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대개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事案을 봐서는 분리되는 것 도 관계 없겠네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오히려 대중을 국제교류재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여주 자영농고 부설 農 業專門教育院에 대한 支援計劃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정쩡한 답변을 들었는 데 그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전 국에 하나잖아요.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委員님, 여주 자영농고

교육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넣어 주세요. 소위원회를 오늘 합니다.

○金日柱委員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咸鍾漢 더 토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教育部所管豫算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교육부소관예산안은 豫算案審査小委員會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잠시 후에 있습니다.

豫算案審査小委員會의 豫算案審査를 위해서 停會를 한 후 오후 10시에 續開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22시59분 계속개회)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豫算案審査小委員會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인 朴範珍 委員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朴範珍 예산안심사소위원장 朴範珍 委員입니다.

1999年度教育部所管豫算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金貞淑 委員, 朴承國 委員, 李源馥 委員, 盧武鉉 委員, 薛勳 委員, 金日柱 委員 그리고 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主要爭點事項을 중심으로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修正議決하였습니다.

먼저 增額事業을 말씀드리면 一般會計 豫算 가운데 전문대학 실업대책 재취업 및 전직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억원, 여주자연농고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예산 19억1,400만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시설비 및 의료장비 확충비 56억9,500만원, 경북대·전남대 학생교류에 따른 기숙사 설계비 4억원, 공주대 기숙사 설계비 1억8,400만원, 사립전문대 실험실습비 35억8,100만원, 국제전문인력 양

성 30억원, 한·일인적교류사업 1억300만원, 파라과이한국학교기숙사 설립지원 9억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전산운영 3,000만원, 여성교육정책 연구비 그중에서 프로그램 개발 2억, 연구학교 운영 1억해서 3억이고 실직자자녀 학비지원사업 2,302억원, 실업계고교 교육내실화 150억원, 사립특수학교 설계비 2억원, 한국교육방송원 출연 60억원, 대학기초과학연구소 지원 153억원, 국립특수교육원 연구비 5억원, 小計 3,033억700만원 그리고 財政融資特別會計 豫算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시설자금 용자사업비 500억원, 사립대학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500억원, 小計 1,000억원을 증액하여 총 4,033억7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우수지방대학 지원예산은 教育委員會와 긴밀히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範珍 小委員長 그리고 小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異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이견 있습니다.

제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意見을 냈지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학교수업 혁신 교육연구활동 지원 37억원 이것 삭감해 줄 것과 그 다음에 학부모단체 지원 신규로 3억원 해놓은 것 삭감해 주시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에 9억 들어있는 것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께서 2,000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놓으셨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執行案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들 보고 이것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아무리 장관이 가서 돈을 확보를 해왔다고 해도 國民의 稅金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쓰고 있는데 우리가 教育財政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국가전체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구체적인 案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돈을 일단 확보를 해 놓

고 ‘교육위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라는 但書條項을 달아놓고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0억원 이것 삭감입니다. 이 네가지 안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會 할 때도 얘기했지만 소위원회에서 저 하나만 異見이 나왔고 대충 다 그냥 넘어가고 일어서 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앞에, 國民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2,000억원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項目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教育委員들까지 같이 합세해 가지고 동의를 해주기에 우리가 국민 앞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再考를 하시고 세가지 돈 삭감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委員長 威鍾漢 李相賢 委員 말씀하세요.

○李相賢委員 金貞淑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 및 우수 지방대학 지원예산은 教育委員會와 긴밀히 協議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假定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源馥委員 그것과 같은 생각인데 부대의견으로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 및 우수 지방대학 지원 예산은 教育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이 文句는 우리가 논의한 것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화시키는데 부족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구 자체는 추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았지만 우리가 論議한 것은 조금 더 具體性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불분명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 재론의 여지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되었던 것을 제가 지금 갑자기 구두로 말하기는 뭐해서 그렇습니다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서울大中心으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한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비교적 大學院을 育成해 나가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

해서는 많이 동의하는 것이 있으니까 서울대학만 중심으로 하는 그 틀이 아닌 상태속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받아가면서 執行해 나가기로 한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문구로서는 약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문구조정을 조금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金貞淑 委員님이 근본적으로 削減해야 된다는 얘기는 별도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일단 소위에서 한 얘기는 이 자체만으로도 오해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빠졌는데 정리하시는 분이 잘못해서 빠뜨린 것 같은데 동료 金貞淑 委員님은 “학부모단체 지원예산 3 억원은 근본적으로 삭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주시고 아까 소위원회에서는 학부모단체 지원예산 3억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단체한테 나누어주는 형태는 안 되고 교육부가 전국에 많은 학부모들이 있고 학부모단체도 있고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교육개혁이 되든 교과에 대한 것이 되든 입시제도에 대한 것이 되든 여러 가지 事案別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교육부가 학부모를 상대로 한 教育하는 費用으로써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겠다 그런 단서로서는 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전면이 다 빠졌어요. 그 但書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朴範珍 李源馥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報告內容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런 취지 얘기를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李相賢 委員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은 事業計劃이 아직도 확실하게 짜여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教育위원회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계획수립도 같이 상의하고 집행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대사항을 넣었습니다.

○李源馥委員 그 문제가 속기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 통과되어 버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견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이 審査報告書에 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체의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

로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본위원 자체도 모르겠고 아까 장관께서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2,000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지도 않고 구체적인 事業計劃도 없이 내용은 書類도 없고 지금 2,000억원에 대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겠지요. 이런 데에 쓰려고 확보를 해 오니까 미리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상당히 큰 부분의 돈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案을 오늘밤에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끼리도, 李相賢 委員님도 방금 말씀 중에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에 어떻게 이것을 教育財政으로 확보하는데에만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이것을 동의를 하면서 통과를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통과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항목은 삭감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薛勳委員** 존경하는 金貞淑 委員께서 아까 소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를 마칠 때 전체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마친 것인데 지금 상임위에 나와 가지고 다시 이것을 반복을 하다시피 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나하나한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제가 반복은 아닙니다. 아까도 반대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수에 밀려서 제가 나왔는데 수에 밀려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라도 얘기해야지요. 반복 아니에요. 아까 내가 찬성 안 했어요.

○**薛勳委員** 金貞淑 委員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2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論議를 해 가지고 오늘 밤을 새울 수도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金貞淑 委員의 뜻을 충분히 아니까 해야러가지고 앞으로 豫算執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盧武鉉 委員님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소위심의과정에서 金貞淑 委員께서 몇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檢討意見案 대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가니까 씩 웃고 한발 물러서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용으로 받아들였던 데에서 약간의 의사해석에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소위에서 동의하셨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점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전체 국정진행의 과정도 있고 그것을 문서로 잘 다듬어서 국가예산 전체를 월요일부터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류를 해도 계속 甲論乙駁 시간만 끌게 되니까 金貞淑 委員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유보를 해 두셨다 라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해 두고 또 李源馥 委員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산에 관해서 대학원중심 대학 육성사업 이 부분에 관해서 지방거점대학까지 합해서 2,000억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수준이 조금 낮다고 보면 '執行計劃을 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서 執行한다' 承認까지로 끌어올려도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학부모단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李源馥 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같은 단서를 붙이거나 아니면 직접지원이 아니라 間接支援의 方式으로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교육 등 기타 간접지원의 方式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통과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모두가 안 좋겠습니까? 밤이 늦었는데……

장관께서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承認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싶고 학부모단체 지원도 직접 교부가 아닌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但書를 달아도 별 지장이 없으시면 그렇게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절충해 주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委員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학교수업혁신연구활동비 37억원하고 학부모단체지원 3억원 그리고 새교육공동체운영비 9억원, 세계수준대학원육성 및 우수지방대학 지원에 2,000억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끝까지 당의 당론으로 이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제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黃祐呂委員 제가 소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서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學父母團體支援 그것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해 보면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 단체에 약간의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教育改革에 오해를 안 받고 건전하게 해 나가려면 지금 5개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5개 단체가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될 단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3억이라도 돈을 지급을 받았다 라는 말이 소문이 크게 납니다. 크게 나고 정치적으로 공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럴 필요 없다.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그 항목을 바꾸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教育部로서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小委에서 그것이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고 다만 그것이 學父母들에 대한 教育費로 項目을 바꿔주는 단서가 붙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안 그대로 의결을 하실 수는 없고 그것이 5개 단체에 지원 내지 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 안되고 존경하는 盧武鉉委員 말씀대로 완전히 수정을 해서 金貞淑委員께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아서, 저도 그 부분은 金貞淑委員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3억 가지고 과연 어느 범위에 어떤 학부모들에 대해서 교육개혁에 대한 취지를 교육시키는지 그것도 막연하니까 서울대학교에 2,000억 운용하는데 집행과 계획을 세울 때 ‘承認’ 받는다는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러한 보류를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대로 나가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소감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金貞淑委員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黃委員님과 金貞淑委員님이 말씀하신 학부모단체, 학부모단체가 돈을 모아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돈을 가지고 쓴다 말이에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학부모단체한테 나라 돈을 쓰라고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정말 이때까지도 없던 일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학부모회를 지금 운영위원회가 하네 못하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까지 주어 가지고 그것을活性化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웃음거리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내가 아까 이 질의에 그것을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빨리 마치기 위해서 질의한 것 답변 안 해도 지나갔는데 나도 金貞淑委員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勳委員 말씀하세요.

○薛勳委員 학부모관계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敎員停年問題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學父母쪽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계신 많은 委員들이 정년단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는 처지라서 학부모단체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學父母團體는 敎員停年問題에 대해서 단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정년 단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부모단체가 하고 있는 機能中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을 정상적인 측면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들을 支援해주면서 뭔가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은 어떤 특정 학부모단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깎아야 된 다든지, 혹시 정부에서 과거의 官邊團體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는 정말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 그대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勳委員, 학부모단체지원은 여기에 보면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

이 학부모 의식개혁 및 현장교육 운영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중심의 재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學父母 意識改革을 한다든가 現場教育 運營改善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薛 勳委員 아니 위원장님, 平生教育은 왜 합니까?

○委員長 咸鍾漢 평생교육은 교사나 우리 단체에서 사회교육지도자들이 하는 것이지 학부모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薛 勳委員 우리가 寸志問題라 하더라도…… 물론 받는 教師들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촛지문제의 本質的인 부분들은 學父母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촛지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니까 學父母教育을 시켜야지요.

○薛 勳委員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줄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教育部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할 것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教育部에서 해야지 어떻게 학부모단체가 그것을 합니까?

○薛 勳委員 그러니까 教育部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돈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여기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薛 勳委員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읽고 계신다니까요. 같은 취지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이나 똑같은 취지인데 그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朴承國委員 조금 있으면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金貞淑 委員이 3억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이 되었으니까 우선 하나는 성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 하나씩 빨리 처리를 하고……

○朴範珍委員 그렇게 합시다. 하나 하나 表決處理해요.

○委員長 咸鍾漢 그럼시다.

○薛 勳委員 잠깐만요, 處理方法에 대해 가지고 아직 논의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하십시오.

○教育部長官 李海瓚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저희 교육부 입장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말씀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지금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잘 정리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報告가 되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요한 研究中心大學에 대해서는 이것이 包括豫算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 審議過程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常任委 次元에서 이것만 가지고 한 번 충분한 논의를 사전에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定期國會가 會議가 늦어지면서 豫算審議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오늘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처리된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한 번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豫算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늘 이 教育委員會에 저희 教育部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立案이 完了가 되는 단계에서 집행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지금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이것을 다루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이 教育委員會에서 最終的인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이 예산의 長期的인 安定的인 執行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朴範珍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附帶條件을 좀더 명확하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學父母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이 名稱을 잘못 써서 제출했다 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부처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아웃소싱을 시키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傘下 研究院들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산하 연구원들을 總理室 傘下로 다 보내고 저희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베이스로 하는 것처럼, 부처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위탁해서 하거나 아웃소싱을 합니다.

이 경우도 저희가 학부모에 대해서 가령 나중에 그 여론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촛지에 관한 輿論調査를 해보니까 이것을 교사들은 안

받습니다. 교사들은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아직도 부모들은 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學父母團體들이 안 받기 캠페인을 한다든가 계몽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절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나 市·道教育廳에서 해가지고서는 효용을 못 갖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프로그램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 항목을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教育部豫算에 그 동안 삼락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집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라면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런 것은 여기다 항목을 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육부 차원에서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다른 항목이 없습니다.

지금 國家豫算은 이렇게 明示化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경상보조를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아니 항목에 넣지 않더라도 이런 정신의 운동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학부모 교육도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것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李源龍委員 아까 이 문제는 小委員會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단체,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해소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도 用語上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신 것이고 또 우리도 그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소위원회할 적에는 ‘學父母教育振興’ 이런 형태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교육진흥이지 단체가 아니니까 단체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방식은 이제 안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교육이 형성되어지는 여러 축이 있게 되는데 거기

에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학교운영권자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한 축이 또 學父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모든 현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교사들에 대해서 많은 연수 교육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들어갑니다. 또 教育行政家들에 대해서도 어디 해외도 보내주고 뭐 합니다.

마찬가지로 教育部의 전체 프로그램 속에서 학부형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프로젝트들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政治的으로라든가 또는 社會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社會通念上 무리가 다소 있어 보인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問題提起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소지 자체를 싹 없애버리는 쪽으로 하고 제대로만 한다면 오히려 3억이 저는 부족한 부분이다, 사실은 제대로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학부형들도 바뀌어야지요. 學父兄들 教育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학부형들을 교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平生教育 次元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類의 오해소지 자체가 있게끔 되는 분위기, 이것만 싹 제거해 주신다면은 단서에 명확하게 붙인다면 3억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불신의 요지를 싹 없앨 수 있는 단서를 확실하게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學父母團體 支援이 아니라 學父母教育 振興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제 個人意見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許男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許男委員 나는 學校校長 오래한 사람인데 옛날에 치맛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학교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근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와와하고 다녀 가지고 학교에 이런 일 저런 일 우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學父兄會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교육에 지장을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또 특히 意識改革은 누구한테 의식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생을 의식개혁한다는 말입니까, 학생을 의식개혁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고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이상한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삭감하고 재론하지 말아야지, 이것 가지고 이렇게 고치나 저렇게 고치나

종이로 싸든 양복으로 싸든 무엇으로 싸든 냄새가 나는 것인데 쓸데없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삭감해 버리세요.

○委員長 咸鍾漢 어떻습니까? 표결을 할까요?

그냥 이 3억은 여러분들 削減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小委員長 朴範珍 아니 小委員會에서 多數意見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나와 가지고 또 바뀌면 소위원회를 앞으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전체회의에서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小委員도 나와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다수의결로 채택된 것은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金貞淑委員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도 만약에 거기서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도 의견개진은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나무라시면 안되고 아까도 제가 소위원회에서도 저는 찬성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자꾸 했어요. 강조를 했어도 거기 소위원회에서는 나 하나밖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全體討論을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薛勳委員 그런 논리를 펴면은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도 안하고 그냥 넘어왔던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하세요.

○薛勳委員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小委員會를 다시 새로 해야 합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셔서 오늘 이것을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음 날로 넘길 것인지 우리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시겠어요?

○薛勳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잠시 意見調整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20시37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鍾漢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繼續하겠습니다.

이미 子正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차 교육위원회

를 이것으로 散會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零時 산회)

○出席委員

| | | | |
|-----|-----|-----|-----|
| 咸鍾漢 | 金貞淑 | 朴承國 | 李相賢 |
| 李源馥 | 李在五 | 黃祐呂 | 盧武鉉 |
| 薛勳 | 朴範珍 | 鄭東泳 | 鄭喜卿 |
| 金日柱 | 金許男 | 金顯煜 | |

○出席專門委員

| | |
|---------|-------|
| 專 門 委 員 | 鄭 富 永 |
| 專 門 委 員 | 尙 元 鍾 |

○出席國務委員

| | |
|-----------|-------|
| 教 育 部 長 官 | 李 海 瓚 |
|-----------|-------|

○出席政府委員

| | | |
|----------|-------|--|
| 教 育 部 | | |
| 次 官 | 趙 宣 濟 | |
| 企劃管理室長 | 金 成 東 | |
| 學校政策室長 | 任 東 權 | |
| 平生教育局長 | 金 容 炫 | |
| 學術研究支援局長 | 鄭 相 煥 | |
| 教育環境改善局長 | 李 基 雨 | |
| 教育情報化局長 | 李 承 茂 | |

○政府側參席者

| | | |
|-----------|-------|--|
| 教 育 部 | | |
| 公 報 官 | 金 京 會 | |
| 監 查 官 | 具 寬 書 | |
| 國際教育協力官 | 李 鍾 瑞 | |
| 教育政策企劃官 | 徐 南 洙 | |
| 非常計劃官 | 崔 完 涉 | |
| 學校政策審議官 | 具 鶴 鳳 | |
| 教育課程政策審議官 | 俞 千 根 | |
| 教員政策審議官 | 金 光 祚 | |
| 總 務 課 長 | 任 承 彬 | |
| 教員養成研修課長 | 金 澈 | |

○其他參席者

| | |
|--------------------|-------|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副 院 長 | 李 成 茂 |
|--------------------|-------|